



「YWCA회보」는 1947년 9월 창간, 2025년 12월 「한국YWCA」 595호까지 발간되었습니다.
2026년부터 새롭게 웹진으로 발간됩니다.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00여 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 02.774.9702

(사)강릉 033.651.1385	(사)대전 042.254.3035	(사)속초 033.635.3523	(사)의정부 031.853.6332	(사)춘천 033.254.4878
(사)거제 055.682.4950	(사)동해 033.531.3007	(사)수원 031.252.5111	(사)익산 063.857.8910	(사)충주 043.848.3240
(사)고양 031.919.4040	(사)마산 055.246.8746	(사)순천 061.744.7990	(사)인천 032.424.0524	(사)통영 055.646.2547
(사)광양 061.762.0012	(사)목포 061.242.1611	(사)안동 054.854.5481	(사)전주 063.224.5501	(사)파주 031.945.5998
(사)광주 062.609.1300	(사)부산 051.441.2221	(사)안산 031.483.6536	(사)제주 064.711.8322	(사)평택 031.651.7701
(사)군산 063.462.4491	(사)부천 032.668.9700	(사)안양과천군포의왕 031.455.2700	(사)제천 043.645.2580	(사)포항 054.274.4444
(사)김해 055.332.6000	(사)사천 055.833.2344	(사)양산 055.367.1144	(사)진주 055.755.3463	(사)하남 031.793.7771
(사)남양주 031.577.7762	(사)서귀포 064.762.1400	(사)여수 061.654.2161	(사)진해 055.542.0020	
(사)남원 063.632.7002	(사)서울 02.3705.6000	(사)울산 052.247.3520	(사)창원 055.283.9488	
(사)논산 041.736.7393	(사)성남 031.708.2503	(사)원주 033.742.6090	(사)천안 041.575.0961	
(사)대구 053.652.0070	(사)세종 044.865.2432		(사)청주 043.265.3700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한국YWCA

2025 WINTER 11+12 Vol.595

기획

연대하는 용기

후원연대, 정책연대
소통연대, 지역연대
섬김연대

중·인

제23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인권과 평화, 포용과 공존의 세상
꿈꾸며 걸어가다

이슈 포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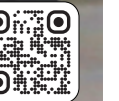
지자체 사회적경제 정책평가 시상식

지자체의 사회적경제 정책개선을 이끌며

현장

**세계여성폭력추방의날
검은목요일 캠페인**

세대가 함께 디지털 폭력 끝내기



www.ywca.or.kr

작은 목소리가 모여 큰 울림이 되는 공간

공론장은 우리 사회와 조직이 안고 있는 갈등과 복잡한 문제들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한 민주적인 과정입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를 경청하고 숙고함으로써 우리는 단순한 타협을 넘어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찾아갑니다.

YWCA 공론플랫폼으로 디지털 환경에서도 YWCA회원과 시민이 함께 사회적 의제 숙의에 참여하고 해답을 찾아가입니다.

YWCA 공론플랫폼,

당신의 참여가 내일의 변화를 여는 시작입니다.



CONTENTS

Vol.595
2025 WINTER 11+12
www.ywca.or.kr

한국YWCA 목적문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5년 11월~12월 주요 일정

11월 1일	월례아침기도회
11월 5일	한국YWCA 주관 수요집회 수요사위
11월 10일	YW-YM 국제친선 및 세계기도주간 예배
11월 12일	YWCA 청소년 금융-경제교육 20주년 국제포럼
11월 18일	비영리-공익법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국회토론회
11월 20일	제23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11월 22일	고백(Go-100)프로젝트 최종공유회
11월 27일	제4차 YWCA의료공론플랫폼
12월 10일	YWCA 성탄예배

제62권 제4호 통권 595호
2025년 12월 26일 발행 (등록번호 마00096)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조은영 편집인 박은실
편집 안정희 이주영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사)한국YWCA연합회
디자인 아침열시디자인 인쇄 지경문화사
전화 02)774-0230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orea
구독료 연간 3만원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COVER STORY

2025 한국YWCA연합회 성탄예배가 12월 10일 열렸다. 평화를 위해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연대와 공감의 힘으로 2026년에도 평화를 일구는 발걸음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을 함께 다짐하였다.



02
이달의 생각
연결의 은혜, 연대의 미래 **함희경**

03
말씀 묵상
연대와 공감으로 이루는 평화 **김장환**

기획 | 연대하는 용기

04
후원연대
수잔 리(Susan Lee) : 가치있고 보람된 일에 기부하고 싶어 **편집실**
(주)럭스나인 김인호 대표 : 예술을 품는 마음, 청년을 향한 동행 **편집실**

06
정책연대
잘가, 프로크루스테스 침대 **이화숙**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의료를 향한 공동의 약속 **강희경**

09
소통연대
대화로 만드는 변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 **황현숙**

10
지역연대
운동의 언어를 함께 만들어온 60년 **오은숙**
감사로 이어온 40년, 평화로 나아갈 내일 **조영숙**
함께한 35년 함께 여는 50년 **이미진**

13
섬김 연대
숙의와 환대로 이어진 한국YWCA **조은영**
함께함의 기적 **김은경**
2025년을 달군 연대하는 용기 **이은영**
청년을 당사자로 세우는 실험의 시간 **서다미**
12가지 연대의 순간들 **박은실**

18
중·인 ① | 제23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인권과 평화, 포용과 공존의 세상, 꿈꾸며 걸어가다 **정서연**

21
중·인 ② | YWCA 청소년 금융-경제교육 20주년 국제포럼
삶을 설계하는 힘을 만든 20년 **홍수진**

24
이슈 포커스 | 지자체 사회적경제 정책평가 시상식
지자체의 사회적경제 정책 개선을 이끌며 **배정미**

26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
고백 Go-100 스튜디오 : 문화예술을 통해 청년과 연결되기 **손지수**

29
현장 ① | 세계여성 폭력추방의 날 검은목요일 캠페인
세대가 함께 디지털 폭력 끝내기 **남궁혜경**

32
현장 ② | 2025 세계 YWCA·YMCA 국제친선 및 기도주간 연합예배
사랑의 옷을 입고, 다시 함께 걷다 **윤정민**

34
현장 ③ | 2025 Y-틴 전국연대행동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 제·개정운동 1년 **이은혜**
인천YWCA Y-틴 운동 : 기억을 잇는 우리의 선택 **허은**
충주YWCA Y-틴 운동 : 기억을 지키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다 **이인선**

38
현장 ④ | 2025 식품안전정보교육
기후변화와 식품안전, 그리고 시민실천 **안정희**

40
크리스찬의 눈으로 보는 문화
영화 <세계의 주인> **김선영**

42
연합회 소식

47
회원YWCA 소식

59
2025 목차 색인

연결의 은혜, 연대의 미래

YWCA의 모든 걸음을 관통한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연결(Connectedness)'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 50개 지역 YWCA와의 굳건한 연대,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따뜻한 동행은 우리의 발걸음을 지탱한 힘이었으며, 동시에 앞으로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기도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연결은 YWCA 운동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를 형성하는 가장 근원적인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요 15:5)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생명의 힘을 공급받고 사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더불어 “혹시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서 일으킬 것”(전 4:10)이라는 전도서의 말씀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YWCA는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얻는 생명의 힘과 서로를 붙들어서 세우는 공동체적 사랑 안에서 오늘도 그 사명을 충실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예배와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는 영성은 YWCA 운동의 숨결이자 원동력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새 힘을 공급받으며, 기도를 통해 공동체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또한 영성 훈련 가운데 서로의 아픔과 필요를 품고 중보함으로써, 단순한 조직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 공동체로 서게 됩니다. 둘째, 50개 지역 YWCA와의 연대는 더욱 굳게 다져진 내적 힘입니다. 전도서의 가르침

처럼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전4:12)는 우리 연대의 가치와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각 지역이 삶의 현장에서 성실히 사명을 감당할 때, 그 힘이 연합회와 연결되어 더 크고 아름다운 연대의 결실을 이루어 왔습니다.

YWCA의 가장 소중한 힘은 바깥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깊은 연대입니다. 지역과 연합회가 함께 걸어온 역사와 경험은 이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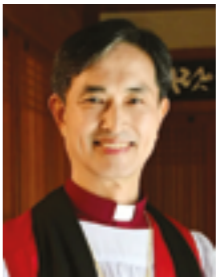
셋째, 지역사회와의 연결은 YWCA가 존재하는 이유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우리는 지역 곳곳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함께 행동하며 새로운 생명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YWCA가 처음 시작한 아나바다 운동은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한국 사회의 생활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상징적 운동이었습니다.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필요한 것을 서로 나누며, 일상의 소비 방식을 새롭게 전환했던 이 운동은 시민 모두가 지속 가능한 삶에 동참하도록 이끌어 낸 사회적 흐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2026년을 바라보며 우리는 다시금 고백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고, 세 겹줄처럼 굳게 연대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며, 서로를 붙들어서 일으킬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YWCA 생명의 바람이 2026년에는 더 멀리, 더 깊이, 더 따뜻하게 퍼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연대와 공감으로 이루는 평화

히브리서 2:14-18

올해 성공회에는 매우 뜻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성공회를 대표하는 캔터베리 대주교로 사라 블래리 주교가 지명된 것입니다. 돌봄과 치유의 영성을 지닌 여성 사목자가 세계 교회의 일치를 상징하는 자리에 세워졌다는 것은, 교회가 정의와 평화, 포용과 평등을 향해 새롭게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표징입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 안에 103년 동안 여성·정의·평화·생명을 위해 기도하고 실천해온 한국 YWCA의 헌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YWCA가 걸어온 길은 성공회가 실천하는 ‘하느님의 선교’의 다섯 가지 표징—복음 선포, 새 신자 양육, 사랑의 봉사, 정의와 화해, 창조세계 보전—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같은 복음의 길, 같은 하느님의 선교를 걷는 동행자들입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히 2:14)”

올해 성탄 예배의 주제가 “연대와 공감으로 이루는 평화”입니다. 히브리서 2장은 하느님께서 “우리과 같은 피와 살을 가지셨다”고 말합니다. 성탄은 하느님이 인간의 고통을 멀리서 바라보지 않으시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시기 위해 우리의 자리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다. 초대교부 아타나시우스의 말처럼, “하느님은 사람이 되셨다. 우리를 짊어가는 자리에서 건져 올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동정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며, 가장 낮은 곳의 사람들과 삶을 나누신 하느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성탄의 기쁨은 “아기 예수의 탄생”만이 아니라, 고통의 한복판에 찾아오신 하느님의 연대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 길을 제시합니다. 성탄을 기뻐한다면, 우리는 그 기쁨을 연대의 삶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이웃을 향해 나아가고, 그들의 상처 앞에 멈추어 서고, 손을 내미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이며, 예수님의 제자도가 향하는 방향입니다. 그럴 때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평화를 일구는 사람이 됩니다. 이 길은 바로 YWCA가 걸어온 길이고, 앞으로도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기후위기로 신음하는 생태계, 차별받는 여성들, 고통받는 이주노동자와 난민들, 돌봄 없이 살아가는 이웃들... 그들의 자리에서 함께 아파하고 연대하는 것, 그것이 평화를 일구어 가는 성탄의 신앙이며 YWCA가 감당하는 하느님의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YWCA 가족 여러분, 성탄은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시는 하느님의 연대의 사랑입니다. 이 성탄절, 그 기쁨을 가슴에 품고 세상 속에서 공감과 연대로 평화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치있고 보람된 일에 기부하고 싶어



수잔 선생님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의 간호장교로 평생 의료 현장에서 헌신해온 분이다. 특히 가까운 동기의 딸이 YWCA 회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한국YWCA의 미션과 활동 내용을 접하며 깊은 공감을 표하셨다고 한다. 여성과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 그 자체가 어머니가 평소 마음에 품고 있던 가치와 정확히 맞닿아 있었기에, 꼭 후원하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셨다는 것이다.

신앙과 돌봄의 철학을 실천하다

특히 의료공론플랫폼에 대한 후원에는 수잔 선생님의 삶의 궤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간호사로서 여러 나라를 오가며 의료선교 활동에 참여해온 경험은 의료를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돌봄과 존엄의 문제'로 바라보게 했다. 조은영 회장을 통해 의료소비자의 참여와 공론을 중심에 둔 YWCA의 의료 활동을 전해 듣고,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자신이 가장 마음을 두고 있는 영역에서 힘을 보태고 싶다는 뜻을 전하셨다고 한다. 수잔 선생님은 평소에도 기부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실천해왔다. 독일 파독 간호사로 3년간 활동한 뒤 1974년 미국으로 이민해 3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하며 바쁜 삶을 살았지만, 의료선교 여행과 교회 비전트립 후원은 한 해도 거르지 않았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나누고 베푸는 삶에 대한 신념을 행동으로 실천해온 것이다. 이번 한국YWCA 후원 역시, 방법을 묻는 과정에서 가족에게 알려지게 되었을 뿐이었다. 한 장의 수표로 시작된 후원은 사람과 가치, 그리고 국경을 넘어선 연대로 확장되었다. 이번 후원은 단체의 활동과 개인의 신뢰가 만날 때, 후원이 어떻게 살아 있는 이야기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뜻깊은 사례로 남게 되었다.



수잔 리(Susan Lee)

지난 6월 10일, 명동길 73번지에 위치한 한국YWCA연합회 앞으로 미국에서 한 통의 우편이 도착했다. 봉투 안에는 달러 수표 한 장이 정성스럽게 동봉되어 있었다. 수표의 주인은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수잔 리(Susan Lee, 90세) 선생님이었다. 수잔 선생님은 '2025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와 'YWCA 의료공론플랫폼'에 각각 미화 1,000달러씩, 총 2,000달러를 지정 후원금으로 보내왔다. 멀리 미국에서 한국YWCA의 활동을 향한 따뜻한 연대의 손길이 전해진 순간이었다. 어떻게 미국에 거주하는 고령의 후원자가 한국YWCA의 새로운 활동에 공감하고 후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을까. 그 배경에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신뢰의 관계가 있었다. 수잔 선생님은 조은영 한국YWCA연합회 회장 모친의 오랜 지인이었고, 이러한 인연이 단체의 가치와 활동을 신뢰로 연결하는 가교가 되었다. 마침 한국에 체류 중이던 수잔 선생님의 아들 이명재 님을 통해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예술을 품는 마음, 청년을 향한 동행



어은 예술가이기도 하다. 예술의 열정과 고통, 희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그는 후원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한다. "미약하지만 이러한 후원을 통해 청년 예술가들에게 우리 사회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의식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높은 이상에 도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 그것이 후원의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주)럭스나인은 매트리스와 토퍼, 베개 등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 '세상을 이롭게'라는 미션 아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쳐 왔다. 기업 영업이익의 6%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며 대형 미술전시회 후원, 국제음악회, 독도전 개최 지원, 장학금 기부, 연탄·쌀 나눔, 미안마어린이 돕기 등 실천적 나눔을 이어 왔다. 이러한 공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경기도의 '착한기업 인증' 등으로 공적으로도 인정받았다.



(주)럭스나인 김인호 대표

한국YWCA와 (주)럭스나인의 인연은 2017년 한국YWCA 창립 95주년을 기념한 희망나눔 YANA 콘서트 후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 사회의 문화적 감수성과 나눔의 가치를 함께 키우고자 했던 럭스나인의 후원은 이후 지속적인 연대로 이어졌다. 2018년에도 한국YWCA 동행콘서트를 후원하고, 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 자코메티 전시 초대권 100장을 기부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YWCA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에 올해까지 꾸준히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는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꿈을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철학을 견지한 장기 동행의 출발점이었다. 럭스나인은 매해 꾸준히 청년 예술가들을 후원하며, 이들이 창작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고 있다.

청년의 성장을 잇는 협력

한국YWCA는 오랜 시간 지역사회 청년의 참여와 성장을 이끄는 활동을 펼쳐 왔다. 럭스나인의 후원은 여기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었다. 청년 예술가들은 지원을 통해 자신의 작업을 이어 가고, 사회와 소통하며 목소리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기업의 자발적 공헌과 시민운동의 비전이 맞닿으며 만들어낸 이 협력의 여정은 예술이 사회와 만나는 통로를 넓히고 청년에게 더 밝은 내일을 약속하는 힘이 되고 있다. 럭스나인과 한국YWCA의 동행은 단순한 후원관계를 넘어,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의 가치를 증명해 내고 있다. 앞으로도 두 기관은 예술과 나눔이 선순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 발걸음을 함께할 것이다.

이윤을 넘어 가치로 환원하는 럭스나인의 선택

(주)럭스나인 김인호 대표는 기업인이기 이전에 사진 작업을 이

잘가, 프로크루스테스 침대

YWCA가 함께 만들어갈 비영리 법제 개혁

+ 이희숙 (사)한국YWCA연합회 이사,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YWCA와 인연을 맺은 것은 조직 재구조화 논의가 막 시작되던 때였다. 한 번은 지역 대표자 워크숍에서 비영리법인 제도에 대한 강의를 하였는데, 소규모 공익법인을 설립·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설명하며, 비용과 효율성만 놓고 보면, 하나의 법인 아래 각 지부가 운영되는 현재 구조가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YWCA는 쉬운 길 대신, 지역 중심의 자발적 운동의 정체성과 실제 운영 구조에 부합하는 재구조화를 선택했다. 이후 공익법인에 대한 투명성 요구와 법적 제재는 더 강화되었다. 한 지부에서 중앙부처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하다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전체 법인이 해당 부처의 보조금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거나, 일부 지부의 기부금품법 위반 사례로 전체 법인의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될 위험까지 생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지부 체제


를 유지할 경우 각 지부에 대한 중앙의 감독과 통제는 강화될 수밖에 없다. 자율성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중심의 YWCA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당시 재구조화 결정은 이런 위험과 비용을 계산해서 내린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자발적 시민운동이라는 실체와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을 택했고, 그 용기 있는 결단이 결과적으로도 옳았던 것이다.


물론 쉬운 여정이 아니었다. 비영리법인 분할 제도가 없어 지역별로 각각 법인을 설립할 수밖에 없었고, 설립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비용도 많이 발생했다. YWCA는 같은 어려움을 다른 단체들이 겪지 않도록 아예 길을 바꾸기로 했다. 민법 개정을 통해 비영리법인 허가주의를 폐지하고,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구성원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를 바꾸



는 것이다. YWCA는 관련 토론회를 열고, 최근에는 (재)동천과 함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묶인 비영리·공익법인』을 발간했다. 이 책의 공익위원회 파트를 맡아 작은 힘을 보탰다. 다른 저자들도 집필료도 없이 기꺼이 참여해 주었다. 한국YWCA 재구조화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류홍번, 송호영, 황인형, 박훈, 김일석, 정순문 위원과 연합회 박동순 국장께 이 기회에 다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렇게 쌓인 연대의 힘은 최근 기쁜 소식으로 돌아왔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가 거부된 청소년직접행동을 대리하여 제기한 설립허가거부처분 소송에서, 동천과 태평양은 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주의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쳤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판을 중단하고 위헌제청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은 '아무런 지침 없이 주무관청에 재량을 맡긴 위 조항은 단체결성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영리회사는 등기만으로 설립이 가능한 준칙주의를 취하는 반면 비영리단체에만 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결정 사유를 밝히고 있다. 견고했던 비영리법제의 장벽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 법원의 위헌제청결정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만 남았다. 다시 한번 연대의 힘을 보여줄 때다. 비영리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통제받지 않고, 자유롭게 단체를 결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를 설득하고, 정부와 국회에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이번 민법 개정 운동은 YWCA 역사에 남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묶인 비영리·공익법인>

- 제1장**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 과제. 류홍번
- 제2장** 비영리·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한계: 한국YWCA 재구조화 사례. 박동순
- 제3장** 민법상 비영리법인 규정의 개정 방향: 법인설립주의의 전환 및 합병·분할 규정의 신설을 중심으로. 송호영
- 제4장** 공익법인법 쟁점과 공익위원회 설치 제도개선 방향. 이희숙
- 제5장** 한국 기부금품 규제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황인형·이희숙
- 제6장** 공익법인의 지방세제 관련 구체적인 개편 방안. 박훈
- 제7장** 공익법인 규제 완화를 위한 사후관리제도 개선 과제: 상증세법을 중심으로. 김일석
- 제8장**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개선 방향에 대한 검토. 정순문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의료를 향한 공동의 약속

+ **강희경** 의료공동행동 공동대표, 서울의대 교수



루어내야 할 일, 해결해 낼 수 있는 일이 되었다.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의료공동행동은 공급자-소비자-환자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매주 학습과 토론을 이어갔고, 의료소비자의 권리와 안전을 중심에 두고, 의료제도와 현장의 문제를 공론화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등 구조적 과제에 대한 정책

고민과 염려로 한 세상을 지내신 내 어머니의 '기댈 곳'이었던 YWCA를 40년 만에 다시 만난 것은 2024년, 중견의 전문의이자 의대 교수로서의 내 안전한 삶이 송두리째 뒤흔려 헤매던 때였다. 의정사태가 악화일로에 있던 그 봄에, 깨어 있지 못한 자들의 어리석은 행보를 YWCA는 '상처받은 치료자'들의 몸부림으로 이해했다. 나에게 그 만남은 '깨어나라'는 징소리와 회복의 시작이었다. 지난해부터의 의료시스템 혼란은 한 위정자의 횡포로 시작되었지만, 사실 지난 수십 년간 쌓여 온 문제들이 끓아 터져 나온 결과였다. 혼란의 한가운데 있었던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어떻게 하면 이 시스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였고, 이 과정에서 깨어 활동하는 조직 YWCA를 만나 함께하게 되었다. 의료시스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공부하고 고민하니,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의사들끼리, 의대교수들끼리만으로는 어디로 다음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이들과 함께 하니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일은 우리가 이

대안을 함께 모색했다. YWCA는 막막할 때, 허덕일 때, 기꺼이 손 내밀어 잡아 주신 곳,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라는 성경 말씀을 실감하게 해주신 곳이다. 모두의 문제를 담대히 내 문제로 여겨 함께 풀어나고자 하는 곳, '섬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나의 롤모델들이 있는 곳이다. YWCA와 함께할 때 나는 '나' 그대로 충분하다고 느낀다. 동시에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어지는 곳이다. 기꺼이 나를 내어주고, 기대했던 그 이상을 함께 이루게 되는 곳, 연대의 힘을 보여주는 곳이다. 우리나라 의료문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꼬여버린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어나야 할지도 아득하지만, 함께 가는 YWCA와 공동행동이 있으니 지치지 않고 나아가려 한다. 우리 모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를 누리게 될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리라 믿는다. 오늘도 YWCA에서 미팅이 있다. 어쩌면, 잃은 지 오래인 친정으로 향하는 마음이다. 내게도 YWCA는 기댈 곳이었다고, 훗날 어머니를 다시 뵙게 되면 말씀드릴 것이다. 

기획 | 연대하는 용기 ③ 소통 연대


+ **황현숙**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사

빠띠가 돌아본 YWCA와의 협력

대화로 만드는 변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



한국YWCA와 빠띠의 협력은 시민사회 운동이 축적해온 경험과 디지털 민주주의의 기술이 만나는 뜻깊은 여정이었다. 갈등이 깊어지는 시대에 시민들이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더 나은 일상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의 모델을 만들기 위한 공동 실험이기도 했다. 빠띠와 한국YWCA의 첫 협업은 '2024 YWCA 확대정책협의회'였다. 빠띠는 '청년이 일하고 싶은 YWCA 만들기' 분과 세션 운영에 참여해 은하투표와 별별대화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대화를 제안했다. 대화는 때로 생각을 바꾸고, 때로 서로의 거리를 좁히며, 공동의 해법을 향해 나아가는 힘을 만들어낸다. 빠띠는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더 잘 담아낼 수 있을지 고민해왔고, 그 고민이 바로 은하투표와 별별대화로 이어졌다. 은하투표는 다양한 시민 의견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도구이며, 별별대화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직접 만나 이해를 넓혀가는 대화 방식이다. 이 두 도구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름을 토대로 대화한다'는 YWCA 공론장의 가치와 깊이 맞닿아 있다는 점을 첫 협업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2025년에는 의료를 주제로 한 협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의료 문제는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지만, 정작 시민의 의견이 정책 논의에 반영되기 어려운 영역이다. 빠띠는 YWCA와 함께 시민이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고 서로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공론장을 설계하는 데 집중했다. 빠띠 플랫폼을 통해 주제 정보를 제공하고, 은하투표를 활용해 시민 의견을 모았으며,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시민들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속의 과정에서 시민의 관점이 확장되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의료공론플랫폼'을 운영한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2025년 9월 'YWCA공론플랫폼'이 공식 오픈되었다. 이어 10월에는 한국YWCA정책협의회에서 새로운 플랫폼을 활용해 '정치적 중립'을 주제로 한 대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2025년 11월에는 은하투표의 사전-사후 비교 기능을 새로 개발해 적용했고, 4차 의료공론플랫폼에서 이를 최초 공개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의견이 대화를 거치며 어떤 흐름으로 이동했는지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공론장이 단순한 의견 수렴이 아니라 '이해의 변화를 존중하는 과정'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지난 1년간의 협력을 통해 YWCA와 빠띠는 시민사회운동이 디지털 환경에서도 속의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시 확인했다. YWCA 공론장에서 마주한 진지한 대화의 순간들은 빠띠에게도 큰 배움과 감동이 되었다. 빠띠는 앞으로도 한국YWCA와 함께 시민 참여를 확장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존중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론장을 꾸준히 만들어갈 것이다. 지난 협력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앞으로의 여정은 더 넓은 연대와 더 깊은 민주주의로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 

운동의 언어를 함께 만들어온 60년

+ 오은숙 (사)청주YWCA 회장



청주YWCA의 60년은 지역 여성들이 스스로 삶을 조직해 온 시간이며, 동시에 한국YWCA연합회와 긴밀히 연대하며 회원운동의 새로운 언어를 함께 만들어 온 역사였다. 청주는 생활세계에서 출발한 문제를 소모임을 통해 나누고, 이를 조직의 힘으로 전환하는 회원운동 모델을 지속적으로 실험해왔다.

1995년 30주년을 맞아 시작한 생협운동과 등대모임은 지역 여성들의 생활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풀뿌리 조직이었다. 등대모임은 소비자운동을 넘어 유기농 먹거리·학교 급식·쓰레기 문제 등 생활 속 문제를 제기하고 실천하는 장으로 기능했다.

한국YWCA연합회는 회원YWCA의 약화된 활동 현실을 인식하고 생명사랑공동체운동을 주력운동으로 채택해 전국적으로 확산했다. 민들레운동의 핵심은 소모임을 통해 지역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역량을 키우는 것이었으며, 이는 청주YWCA가 경험한 생협운동과 등대모임의 흐름을 전국 단위 회원조직 모델로 재구성한 사례이기도 하다. 청주YWCA는 2023년 새로운 회원운동 모델을 모색했고, 그 과정에서 민들레운동의 소모임 정신을 계승한 '여세' 소모임이라는 운동적 지향을 정립하게 되었다.

여세는 본래 한국YWCA 정론지 『여세』의 의미—여성이 함께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킨다—에서 출발한 이름이다. 청주YWCA는 이 명칭을 오늘의 생활 기반 소모임 언어로 재창조하며, 비록 지금은 아직 충분히 뿌리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회원운동을 지향해야 하는가'라는 방향을 세우고 있다. 운동의 언어를 공유한다는 것은 곧 운동의 가치와 상징을 공유하는 깊은 연대임을 실천적으로 확인한 과정이기도 했다.

여세 소모임은 민들레·등대운동의 조직론을 계승하여 여성들이 스스로 질문을 조직하는 공간이다. "왜 골목길은 여전히 어두운가?", "돌봄 부담은 왜 여성에게 집중되는가?", "기후위기는 우리 생활비를 어떻게 바꾸는가?"와 같은 질문은 개인의 경험에서 출발해 공동 의제로 확장되고, 연구·학습·실천으로 이어진다.

여세운동은 한국YWCA 100주년 비전문헌이 제시한 A(Association: 연대·주체성·지역성)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구현한다. 회원이 주체가 되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주체들과 연대하며, YWCA의 가치가 일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과정이 바로 여세운동이 지향하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청주YWCA의 60년은 한국YWCA연합회와 함께 여성의 생명과 존엄을 지켜온 연대의 역사이며, 동시에 새로운 연대의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다. 등대모임에서 민들레운동, 그리고 오늘의 여세운동으로 이어진 흐름은 청주YWCA의 운동이 한국YWCA운동과 연결되고, 다시 지역으로 순환되는 선순환의 과정이다. 또한 한국YWCA의 정론지 『여세』가 회원YWCA의 조직운동 언어로 재해석되고 변용되는 과정은, 서로의 언어와 가치를 공유하며 '연대하는 용기'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감사로 이어온 40년, 평화로 나아갈 내일

+ 조영숙 (사)충주YWCA 회장



충주YWCA의 40년 역사는 지역운동을 넘어 전국YWCA와 함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며 협력해 온 연대의 역사였다. 창립 이후 충주YWCA는 한국YWCA연합회가 펼쳐 온 여성운동, 평화운동, 생명운동을 지역에 뿌리내리고 확장시키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YWCA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지속해 온 다양한 활동에 적극 동참하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인권·지역·평화운동을 충주 지역사회에 알리고 시민과 함께 실천하는 데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어왔다.

이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례는 충주YWCA 청소년동아리 Y-틴 활동이다. 충주 Y-틴은 충주 지역에서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의 제·개정 운동을 펼쳤다. 청소년들은 서명운동, 의견서 제출, 공청회 참여, 시민 캠페인 등 실제 정책 변화를 이끄는 과정에 참여했고, 이는 평화·인권 교육을 넘어 사회변화를 이끌어낸 청소년 시민참여 모델로 성장하였다. 이 활동은 한국YWCA의 평화운동이 지역 청소년의 손을 통해 생생한 변화로 나타난 사례이며, 청소년의 주체성과 지역사회의 인식 변화를 모두 이끌어낸 연대의 결실이었다.

이러한 연대를 통해 충주YWCA는 몇 가지 중요한 성과를 얻게 되었다. 첫째, 전국 단위 의제가 지역사회에서 실질적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충주YWCA가 지역 시민사회 안에서 더욱 확고한 정체성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다. 둘째, 여성과 청소년이 사회변화를 만들어가는 주체로 성장하는 경험이 축적되었고, 충주YWCA의 회원·청소년들은 평화·생명·정의의 가치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실질적 힘을 갖게 되었다. 셋째, 한국YWCA연합회와의 네트워크는 충주YWCA가 단체의 한계를 넘어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운동 기반을 갖추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앞으로 충주YWCA는 연대의 가치를 더욱 확장하며 새로운 40년을 준비하고자 한다. 우선, 청소년과 청년이 주체가 되는 지속 가능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기후위기, 젠더기반 폭력, 평화 위협 문화 등 복합적 위기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우선순위로 두고 YWCA의 정체성 중 하나인 청년성을 회복하기 위해 청년이 운동의 실천적 주체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미래세대가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대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여성, 일·생활 균형, 돌봄 등 지역 여성의 삶과 밀접한 의제를 발굴하고, 연합회와 협력하여 정책 제안과 실천운동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에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는 여성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순환 캠페인, 다시 아나바다 운동 등 일상생활 속 성평등한 기후정의운동을 함께 펼쳐나갈 것이다.

충주YWCA의 40년은 곧 연대의 힘으로 성장한 시간이었다. 한국YWCA연합회와 함께한 연대의 경험은 앞으로의 새로운 40년을 열어가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다.

함께한 35년 함께 여는 50년

+ **이미진** (사)광양YWCA 사무총장



전라남도 광양군이었던 시골마을이 1995년 1월 1일 도농 복합형태의 광양시로 승격되기 전부터 김순신 초대 회장님이 광양 지역에 40명의 회원 분들과 1990년 10월 17일 광양YWCA를 창립하였다.


1992년 소비자 고발센터운영, 무료직업소개, 청소년 어울마당을 맡아 운영하였으며 섬김과 나눔의 정신을 살려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며 광양 지역에 문화생활 기회가 없었던 지역의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어울마당이 각 학교에서 인기가 상당했다.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 장애인 복지관이 없는 상황에서 광양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기 위해 2000년부터 회장님과 이 사님들이 직접 키운 식재료로 식사를 만들어 대접했던 작은 봉사과 정성이 쌓여 지금의 노인무료급식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푸드뱅크사업으로 발전하며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며 사업 지속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초대 회장님의 뜻을 이어 변함없이 나눔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였다. 지금은 단순한 먹거리를 나누는 일을 넘어, 모든 이웃이 존중받고 사랑받

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탈핵기후생명운동, 성평등운동, 평화통일운동, 청소년운동 등 광범위한 사회운동으로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지역사회에 희망의 도구가 되기 위해 운동을 펼치고 있다.

오늘이 있기까지 역대 회장님들(제1대 김순신 회장님, 2대 최춘자 회장님, 3대 송선애 회장님, 4대 강점례 회장님, 5대 성기순 회장님, 6대 최효숙 회장님, 7대 강점례 회장님, 8대故장화섭 회장님, 9대 김양임 회장님, 10대 윤지영 회장님)의 기도와 헌신, 500여 명에 달하는 회원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후원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이 덕분에 지금의 사단법인 광양YWCA로 거듭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남단 작은 도농복합형태의 도시에서 시작하여 35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광양YWCA가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으로 주어진 소임을 다하도록 이사님들, 본부 실무활동가, 부속기관인 여성상담센터와 행복을 여는 집 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따뜻한 동행을 하였고, 전라제주권역의 회장님과 사무총장님, 연합회에서 지지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

한국YWCA가 걸어온 103년이라는 길에 35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역사이지만,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함께하셨고 한국YWCA 연합회와 50개 회원YWCA의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광양YWCA는 앞으로도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YWCA 본연의 소명을 지켜 나갈 것이다.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공동체로서 5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앞으로의 50년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광양YWCA가 되기를 다짐해 본다. 

기획 6 | 연대하는 용기 섬김 연대

+ (사)한국YWCA연합회 회장단, 상임이사

2025 연대하는 용기



속의와 환대로 이어진 한국YWCA

조은영 (사)한국YWCA연합회 회장

2025년, 한국YWCA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시대적 소명을 다시 새기면서 연대하는 용기로 하나되는 은혜와 감사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비상사국 상황에서 긴 겨울로 시작된 올해였으나, 광장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세운 시민들과 우리는 연대하며 감격적인 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봄은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전국 각지의 산천과 지역의 삶터를 앗아간 잔인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삶을 다시 일궈야 하는 사람들과 생명들을 돕고자 전국의 50개 회원YWCA와 한국YWCA는 하나되어 기도하며 마음과 성금을 모아 전달했습니다. 재난을 입은 사람들이 잊혀지지 않고 단계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전히 기억해야 할 기도제목이기도 합니다.

어느 때 보다 뜨거운 여름을 맞으며 기후 재난이 현실이 되고 AI가 우리 삶 속에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급속한 기술과 사회의 발전이 곧 모두에게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것

을 알게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자원과 기회의 불평등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더 많은 이견과 갈등을 마주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는 그 혼란 속에서 YWCA의 오래된 미래인 속의, 연결, 그리고 환대를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어떻게 존재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50개 회원YWCA가 법인으로 체제를 바꾸었으나 그 체제로 재구조화 하는 동안 우리가 경험한 불합리한 비영리, 공익법인의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프록루스테스의 침대에 묶인 비영리, 공익법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그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 냈고 다양한 토론회를 통해 알리고 연대하였습니다.

그런가하면 이런 체제변화에 걸맞는 우리 내부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위해 연합회는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들이 모여 우리가 가장 잘하는 방식을 이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변형하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책협의의 과정을 기존의 절차와 모양을 유지하되 회원YWCA와 연합회가 보다 긴밀하고 깊이 있게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여 논의 주제에 대해 학습하고 적극적으로 속의하는 YWCA공론플랫폼을 론칭하였고, 2026년과 2027년의 운동과 운영의 방향 및 실천과제를 합의하였습니다. 우리 안의 다양한 이견이 있었던 주제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대화와 속의를 통해 하나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해결할 과제는 많지만 "아무 일에도 지니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빌립보서 2:3)", 우리는 말씀대로 서로를 낫게 여기고 환대하며 연결되어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함께함의 기적

김은경 (사)한국YWCA연합회 제1부회장

103년의 역사 속에서 한국YWCA는 언제나 억압받는 여성들의 곁에 서 온 기독교성주의 운동체였습니다. 예수께서 가장 낮은 자리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듯(“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마 20:26), 한국 YWCA는 차별과 배제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며(“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15) 정의·평화·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천해 온 공동체입니다. 자원활동가로 경험한 가장 큰 은혜도 바로 이 ‘함께함의 힘’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 두려움과 혼란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손을 내밀며, 긴밀히 연대하며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일을 굳건히 이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전 4:9)는 말씀처럼, 여성과 청년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전국의 YWCA는 거리와 광장에서, 또 온라인의 연대 공간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향한 시민행동에 흔들림 없이 참여했습니다. 기후재난과 대형 산불의 충격 속에서도 “서로 짐을 지라”(갈 6:2)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지역을 살리는 생명·정의·평화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연대의 중심에는 전국 50개 지역의 회원들과 연합회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이 길은 결코 혼자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목표를 공유하며 결과를 향해 가는 모든 과정에서 힘이 되어주신 선배님들의 지지와 격려, 그리고 특별히 회원정책연구모임에 함께 하며 헌신해 주신 위원님들과 실무활동가들의 열정과 전문성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히 10:24) 걸어온 우리의 발걸음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 땅의 여성들과 시민들에게 ‘함께함으로 살아나는 힘’, 서로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기독교성주의 생명운동의 빛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 역시 그 길의 한 자락에서 끝까지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2025년을 달군 연대하는 용기

이은영 (사)한국YWCA연합회 제2부회장

2년간의 연합회 이사과 임원으로서 임기를 마무리하며, 한국 YWCA와 함께 걸어온 지난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이 소중한 여정의 마지막을 ‘연대’라는 주제로 정리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됩니다. YWCA 활동가로서, 그리고 한 시민으로서 2025년은 우리 사회의 연대하는 용기가 가장 빛났던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올해의 수많은 순간 중에서도, 제 가슴에 가장 깊이 새겨진 장면은 추운 날씨 속에서 전국 활동가들과 수많은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했던 탄핵 촉구 집회의 현장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곳을 가득 메운 열기와 간절함은 그 어떤 것보다 뜨겁고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탄핵을 향한 시민들의 뜨거운 염원이 메아리치던 그 현장에서 연대의 진정한 의미와 소중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선 YWCA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연대입니다. 때로는 굶는 날씨에도,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달려와 한목소리를 낸 YWCA 활동가들의 모습은 우리 조직의 뿌리 깊은 연대와 사명감을 다시금 일깨워주었습니다. 다음은 많은 민주 시민들과의 끈끈한 연대입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눈빛을 나누며, 같은 지향점을 향해 목소리를 함께하고 나아가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저는 YWCA가 지향하는 공동체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의 연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보와 보수를 넘어, 이념과 세대를 초월하여 오직 정의와 상식을 외치기 위해 모인 수많은 시민단체들의 굳건한 연합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연대의 순간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낼 때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을 주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연대는 단순히 힘을 합치는 것을 넘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격려하며,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꿈꾸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2025년 초의 강렬한 연대의 기억으로 우리의 운동의 여정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우리가 함께 외쳤던 정의와 상식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한국YWCA는 앞으로도 사회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약한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연대의 굳건한 징검다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새해에도 모든 YWCA자매들과 활동가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을 당사자로 세우는 실험의 시간

서다미 (사)한국YWCA연합회 청년부회장

2025년은 연구와 실험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마주한 한 해였습니다. 2024년부터 청년정책연구TF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그동안 대학·청년YWCA에서 시도하지 못했던 방식의 고민과 실험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청년 활동은 왜 멈춰 있는가’라는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시간에 가까웠습니다.

TF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YWCA 안의 청년들은 어떤 기대와 한계를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청년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어떤 현실적 고민을 안고 있는지를 한자리에 모아볼 수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위치에서 나온 생각들은 때로는 부딪혔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공통점을 드러냈습니다. 청년 활동이 오랫동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유를 파악하는 실험으로 출발한 TF는, 매 회의마다 내부 구조의 문제와 사

회적 환경, 조직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놓고 몇 시간 씩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원론적인 논의는 2024년에 거의 진행되었다고 생각했으나,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발생하는 문제들이 또 다른 논의를 낳았고, 그로 인해 매 회의는 생기는 토론의 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침체되어 있다고 여겨졌던 청년 활동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청년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 왔는지, 혹은 청년을 말하면서도 정작 청년의 언어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도의 가장 인상적인 지점은 청년을 ‘대상’이 아닌 ‘당사자’로 설정하고, 스스로를 연구의 주제로 세웠다라는 점입니다. 청년이 청년을 분석하고 진단하며 방향을 모색하는 시점의 전환은 그 자체로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만큼이나 한계 또한 분명했습니다.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온 사고의 틀은 쉽게 깨지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정책이나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단계에서는 여전히 기존 제도 안에서 머뭇거리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경험은 실패보다 질문을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당장 만들어낼 것인가보다,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청년 참여가 형식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가 필요한지, 지속 가능한 청년 활동을 위해 어떤 사고의 전환이 요구되는지, 기존의 틀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지



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청년 운동을 새롭게 바라보기 위한 다양한 변화 또한 필요합니다. 2025년은 완성의 해라기보다는, 질문을 제대로 세우기 시작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은 앞으로의 청년 활동이 일시적으로 다시 움직이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청년 활동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할을 수행하던 저 자신이기도 했습니다. 익숙한 방식과 판단에 머물러 있던 시기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판단과 방식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TF의 시간은 활동의 방향을 넘어, 저 스스로가 다시 고민하는 주제로 서게 만든 전환의 계기였습니다. 그렇기에 2025년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청년 운동의 발전을 고민하고 힘을 모을 수 있었음에 깊이 감사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12가지 연대의 순간들

박은실 (사)한국YWCA연합회 상임이사

한국YWCA연합회와 후원회, 복지사업단의 상임이사로서의 새로운 사명으로 섬기기 시작한 2025년이었고 YWCA를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날들이었습니다. 12개의 키워드로 연대의 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1. 누구나 광장 지난해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YWCA는 한국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있어서

는 안 될 일에 대해 단호하고도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고, '누구나 존중받는' 사회를 바라는 마음들로 광장에서 연대했습니다. 이 연대로 추위를 이겨낼 수 있었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2. 현장 그 어디든 고공의 좁은 공간 안에서 지금까지 정의가 바로 서기를, 가족과 일터로 돌아가기를 외치는 노동자에게 작은 도시락을 올려드리며 함께했습니다. '그 어디든 하늘나라'라는 찬양처럼 '그 어디든 운동의 현장'입니다.

3. 산불 앞에서 영남 지역에 엄청나게 큰 산불이 나서 산과 들과 집과 생명들을 태웠습니다. YWCA는 한마음으로 연대했습니다. 강 건너편에 집이 있어 간신히 산불이 번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의성에 사시는 YWCA 대선배님은 YWCA와 세계 곳곳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시는 모습을 말씀해 주시며, 그 와중에도 따뜻한 밥상을 손수 차려 내주셨습니다. 밥은 뜨거웠습니다.

4. YWCA와의 첫 만남 김필레 YWCA 설립자 중 한 분인 김필레 선생님이 세우신 두 학교, 서울 정신여중고 학생들과 광주 수피아여중 학생들이 7월 김필레 선생님 추모예배에서 만났습니다. 8월에는 김필레 리더십 캠프에 참여한 광주 수피아여중 학생들이 한국YWCA연합회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간절히 소망했던 100여 년 전 YWCA를 세운 선배의 정신을 함께 나누는 만남은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5. 오래된 새 꿈 세종NGO 한국YWCA연합회와 한국 YMCA전국연맹, 대한기독교서회 100년이 넘는 세 개의 기독 단체는 지방분권 시대 NGO 활성화를 위해, 활동가들을 만나고 성



장시키는 거점인 NGO센터 건립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기반 공사 첫 삽을 뜹니다. 세월로도, 장소로도, 정신으로도 연대하고 함께하는 일입니다.

6. 열정 의료공동행동 응급실 뺑뺑이, 환자안전사고, 전공의 파업 사태 등 한 해 동안 엄청난 혼란과 고통을 가져왔던 의료대란. 그 근본 원인과 해결을 위해 의료공급자와 의료소비자가 연대했습니다. 매주 학습과 토론, 이슈 정리와 대안 제시 등 각자의 가진 것을 내어놓는 열정 가득한 공동행동의 활동은 손해와 이익을 넘어서는 연대입니다.

7. 50명의 YWCA 사무총장 신입 사무총장 그룹부터 연차별로 1박 2일씩 회원YWCA 사무총장님들을 연합회에서 만났습니다. 회원YWCA 각각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드보라처럼 용기 있게 일어서서 나아가시는 총장님들과의 연대의 날들은 눈물과 함께 소망을 나누는 기쁨이기도 했습니다.


8. 『연대하는 용기』 완판 '올해의 세종 교양도서 선정'이라는 인정 이전에, YWCA 목적문에 대한 해석과 의미를 담은 교재 『연대하는 용기』가 YWCA 내외부에서 사랑을 받아 1쇄가 완판되었고, 중쇄도 완판되었습니다. 함께 교재를 구입함으로써, 한 장씩 운동하는 모임을 가짐으로써 우리 YWCA는 깊이 학습하며 연대하였습니다.

9.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묵인 비영리-공익법인』 비영리-공익법인의 낡은 제도로 인해 갖가지 어려움을 몸소 겪은 YWCA가 재구조화 사례를 정리하여 담아내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자의 지식과 경험을 담은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는

YWCA와 관련 분야를 넘어서 한국 사회 공익 제도 개선의 불씨를 지피는 연대였습니다.

10. 한국YWCA 100년사-우리는 무엇을 바꾸었는가 2022년에 100주년을 맞이하며 100주년 화보집을 발간한 이후, 역사책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활동가들의 눈으로 본 YWCA 역사는 빛나는 부분도 있었고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 자체로 YWCA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유, 연대하는 용기를 가져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11. 다시, 정책 협의 10월 21일, 175명의 한국YWCA 활동가들이 연대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24-2025 YWCA 정책 평가와 2026-2027 YWCA 정책 제안, '정치적 중립'에 관한 서로 다른 견해를 듣고 나누며, 존중하며 경청하는 대화와 토론, 속의로 다름 속에 빛나는 다양함과 창조를 발견하는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12. 선한 청치기로 섬기는 리더들 지난 1년간 한국YWCA연합회 회장단과 이사님들, 실무활동가들, 후원회 이사장님과 이사님들, YWCA복지사업단 이사장님과 이사님들, 올해로 25년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새 길을 여는 은학의집 활동가들, 50개 지역에서 YWCA와 함께해주는 활동가들과 회원님들, 이 선한 분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 선한 청치기로 YWCA를 섬겨주셨기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YWCA 연대는 이어졌고 넓어졌고 깊어졌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연대하는 용기로 이 섬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인권과 평화, 포용과 공존의 세상, 꿈꾸며 걸어가다

김미연 유엔장애인인권위원장,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



한국YWCA연합회는 11월 20일(목) 오후 2시 페이퍼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제23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올해 수상자로 유엔장애인인권위원회 김미연 위원장이 대상, 사단법인 피스모모 문아영 대표가 젊은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은 조은영 한국YWCA연합회 회장의 환영사, 유명순 한국씨티은행 은행장의 후원자 인사, 원영희 한국여성지도자상 운영위원의 심사보고에 이어 대상과 젊은지도자상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제23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선정 키워드 :

인권과 평화, 포용과 공존

한국여성지도자상은 2003년 제정된 이후 각 시대가 필요로 하는 여성 리더십을 발굴하고 지지하기 위해 매년 운영

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 변화와 시대정신을 반영한 심사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왔다.

올해는 특히 기후위기 등 다중위기 속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과 다양한 소통과 포용적 실천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회복력, 정의, 평화 실현에 기여한 영향력을 중요하게 심사하였다. 이러한 심사기준에 따라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실천하며, 포용과 공존을 통해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온 김미연 위원장과 문아영 대표를 선정하게 되었다.

대상 김미연 위원장, 여성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장애인 인권의 국제적 발전에 기여

김미연 대상 수상자는 30년 이상 여성과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해 온 인권 활동가로서 2018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으로 선출된 이래 2019-2022년, 2023-2026년 연임하여 활동해왔으며, 올해 3월 아시아 장애여성 최초로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전 세계 13억 장애인 권리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1995년 제4차 북경세계여성대회에 한국장애여성 대표로 참여, 1997년 미국 국무부 장학생으로 제1회 국제장애여성지도자교육(MobilityUSA)과 제1회 세계장애여성지도자 포럼에 참가하면서 국제장애여성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1999년 장애여성문화공동체를 설립하고 국내에서 본격적인 장애여성운동을 하면서, 한국의 장애 관련 정책이 태동하던 시기부터 국내와 국제사회 차원에서 장애인 권 증진을 위해 관심을 가져왔다.

2002년부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정을 위한 유엔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를 전개했으며, 2006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정 과정에서 제6조 장애여성 조항 도입을 주도하여 여성장애인의 권리와 다중차별의 법적 인정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공헌을 했다. 또한 국내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이끄는 등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수상소감에서 김미연 위원장은 “전 세계 13억 명의 장애



인들이 아직도 어렵고 또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에 알리고,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한국의 장애 리더십을 새롭게 보여주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젊은지도자상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 평화교육을 통해 탈분단과 공존의 문화 확산에 기여

문아영 젊은지도자상 수상자는 2012년 피스모모를 창립하고 평화교육을 통해 한국사회에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전파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특히 서로를 포용하지 못하고 적대시하는 문화가 분단을 경험하는 우리 사회의 군사주의 문화임을 주목하고 ‘탈분단 평화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군사주의 문화를 더욱 강화시키는 군사비 지출 증대와 같은 구조적 측면에 주목하고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행하는 ‘세계군사비지출 보고서’(연보)를 번역해 홈페이지와 책으로 배포하여 한국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국제 시민사회네트워크 스태프킬러로봇 캠페인과 함께 유엔 특정무기금지협약 정부전문가회의에 참여하여 자율살상무기 금지를 위한 국제협약 체결에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교육 정책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며 평화와 평화교육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삶을 설계하는 힘을 만든 20년



삶을 설계하는 힘을 만든 20년

청소년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는 힘을 갖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한국YWCA가 지난 20년 동안 ‘핑크머니’ 금융교육을 통해 꾸준히 붙들여온 질문이다. 2006년 작은 교실에서 출발했던 교육은 어느새 전국 곳곳으로 확장되며 수많은 청소년들의 생각과 선택을 바꾸어 왔다. 변화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청소년에게 필요한 배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어가야 하는지를 모색하기 위해 한국YWCA연합회는 <포용적 금융사회를 향한 발걸음·핑크머니 20년의 성찰과 연대의 미래>를 주제로 2025년 11월 12일에 두잉극센터에서 국제포럼을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국내외 전문가들과 현장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발제와 토론을 이어가며, 지난 20년을 성찰하고 미래 금융교육의 길을 함께 그려보는 특별한 자리였다.

성찰과 감사로 문을 연 20주년 국제포럼

조은영 (사)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핑크머니 교육이 단순한 금융지식 전달을 넘어 ‘삶을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교육’이었다고 강조했다. 청소년이 숫자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의미, 선택의 책임과 관계의 감수성을 배워왔다는 점을 되짚었다.

유명순 한국씨티은행 은행장은 금융이 삶의 기회를 여는 힘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포용 금융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관련 기

수상소감에서 문아영 대표는 “평화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주제이다보니, 이렇게 상을 주셔서 뜻밖이면서도 감사하다. 상의 무게만큼 앞으로 책임감 있게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축하공연으로 평화첼리스트 배범준의 연주가 진행되었으며, 양진옥 한국여성지도자상 운영위원의 진행으로 ‘서로를 잇는 사람들: 인권과 평화로 서로를 연결하다’를 주제로 한 토크세션이 마련되어 수상자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여성지도자상은 올해로 23회째를 맞으며, 전문성, 창의력, 헌신과 기여 등을 바탕으로 여성 지도력 향상에 공헌한 여성 지도자에게 대상, 미래 여성의 역할을 열어가는 50세 이하 여성에게 젊은지도자상을 수여해왔다. 최근 역대 수상자로는 이혜숙 한국과학기술센터혁신센터 소장, 추혜인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의원 원장, 이진희 (주)베어베터 공동대표, 김보미 변호사 등이 있다. W

토 | 크 | 세 | 션

‘서로를 잇는 사람들 : 인권과 평화로 서로를 연결하다’



국제 활동과 기억에 남는 순간

김미연 위원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정 과정에서 전 세계 장애인성들과 연대하며 협약 제6조 ‘장애여성’ 조항을 도입해낸 경험을 가장 뜻깊었던 순간으로 소개했다. “약자라고 불리던 장애여성들이 모여 국제 규범을 바꾸어낸 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문아영 대표는 국제사회 군축 논의에 참여하며, 전쟁 산업과 군비 확장이 가져오는 구조적 폭력에 대해 한국 사회가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평화학 강연 중 군인으로부터 “너는 이상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경험을 소개하며,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이들과 대화의 가능성을 확인했던 순간을 공유했다.

한국 사회에 필요한 변화와 미래를 위한 제언

김미연 위원장은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만드는 제약”으로 바라보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의 권리를 존엄한 인간의 권리로 이해하는 사회적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 정책의 중심에 인권과 평화가 다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아영 대표는 한국 사회가 사용하는 “우리”라는 말이 매우 협소하게 정의될 때 배제와 갈등이 심화된다고 지적하며, 우리를 국경 너머와 생명권 전체로 확장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의 안전과 생존은 국경 안의 문제만이 아니다”라며, 기후위기 시대의 보편적 연대와 감수성을 강조했다.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

김미연 위원장은 성장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겪은 배제와 차별의 경험이 “세상이 나를 거부한다면, 내가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는 결심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장애여성문화공동체 설립과 유엔 활동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며, 국내외 여성장애인 리더들과의 만남이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문아영 대표는 대학 시절 삶의 의미를 묻는 고민, 우간다 자원활동에서의 경험, 용산참사 현장을 목격한 충격이 피스모모 설립의 밑바탕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람의 생명이 경제적 가치보다 덜 소중하게 여겨지는 현실에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말하며 평화교육의 방향을 찾게 된 과정을 공유했다.



관 인사, 현장 강사들이 축사로 포럼을 열어주었다. 이날 국제포럼은 20주년을 기념하여, 포럼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지난 20년 동안 씩크머니 교육프로그램을 위해 활동해 온 강사와 협력기관, 지역YWCA에 감사장을 전달하는 순서도 가졌다.

현장에서 만들어진 변화: 청소년 금융교육 20년의 기록

첫 번째 세션은 이은영 (사)한국YWCA연합회 제2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현장에서 만든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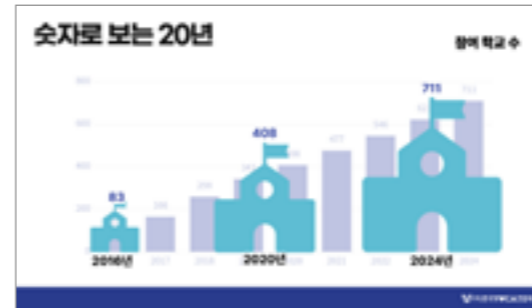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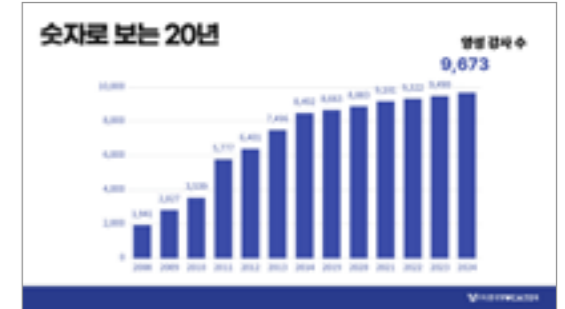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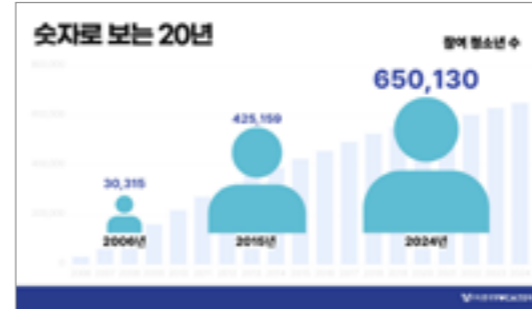
정승애 YWCA청소년금융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경제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청소년의 삶에 동행하며 변화의 순간을 함께 만드는 교육 실천의 장이었다고 발표했다. 그는 좁은 길을 선택하면서도 흔들림 없이 걸어온 강사들과 지역YWCA의 노력이 20년의 토양을 이루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남순 (사)수원YWCA 팀장은 지역과 학교,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청소년들의 금융 접근성을 넓혀온 지역 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강석원 인카금융서비스 부지점장은 강사 활동 경험과 금융권 취업 사례를 통해 금융교육이 청소년뿐 아니라 교육자에게도 성장의 기회가 되는 과정을 나누었다. 김도훈 한국씨티은행 부부장은 씩크머니가 '성인 중심이던 금융교육을 청소년의 영역까지 확장한 풀뿌리 금융교육 기반이었

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공교육과 지역 기반 교육을 통해 청소년 금융교육이 더 넓고 깊게 자리 잡기를 제안했다. 세션 1은 지난 20년의 쉽지는 않았지만 작은 변화들이 쌓여 지금의 금융교육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자리였다.

미래를 여는 금융교육: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사회

두 번째 세션은 함희경 (사)한국YWCA연합회 이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미래 금융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층적으로 살펴보았다.

미국 CEE의 Dr. Ruben A. Rivera 선임이사는 금융교육이 청소년의 삶을 설계하는 능력을 확장한다는 관점에서, 금융교육을 한 과목이 아니라 여러 교과에 통합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사 연수와 연구 지원, 학교-지역-가정 간 협력이 지속가능한 청소년 금융교육의 핵심 기반임을 제안했다. 싱가포르 IFL의 Lawrence Tan 선임 매니저는 싱가포르의 무료 공공금융교육 사례를 공유하며, 금융역량이 실제 행동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 설계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문신환 (사)서울YWCA 간사는 청년 강사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교육 구조를 소개했고, 오영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팀장은 CSR 기반의 사회적 가치 연대 모색, 정지유 KDB나눔재단 파트장은 금융·경제 분야 사회공헌 활동의 구체적 성과를 발표했다.



세션 2는 청소년 금융교육이 더 이상 한 기관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적 협력과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적 과제임을 보여준 시간이었다.

지속가능한 청소년 금융교육을 위한 공동의 과제

종합토론에서 참가자들은 변화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청소년의 금융학습권을 공적으로 보장하는 체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디지털 금융기술의 발전과 온라인 소비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직면하는 위험,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육 내용이 개발되어야 하며 교육자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역, 계층, 학교 환경에 따른 균등한 교육 접근을 위한 공공적 지원과 지역 기반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배움에서 실천으로 가치를 만들어가는 시간

필자는 지난 10년 동안 씩크머니 사업을 담당하며 수많은 청소년들을 만났다. 교실 문을 열고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던 모습, 수업 중 조심스럽게 손을 들던 표정, 또래 문화와 소비의 압박 속에서 불안을 털어놓던 순간까지, 그 모든 장면이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에 남아 있다. 이러한 경험들은 교육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다시 일깨워 주었고,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 시간을 함께 만들어 온 강사들의 헌신, 지역에서 청소년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돌봐 준 YWCA 활동가들의 노력, 그리고 수업 시간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나누어 준 청소년들 덕분에 우리의 시간은 더욱 단단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다.

앞으로도 YWCA 금융·경제교육이 청소년에게 단순한 금융지식을 넘어 삶을 확장하는 배움이자,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중요한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청소년의 한 걸음을 믿고 지지하는 교육, 그리고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공동체로서의 교육으로 따뜻하게 채워나가길 기대한다.

2025년도 경기도 광명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 시상

지자체의 사회적경제 정책 개선을 이끌며



지난 11월 26일(수) 오전 11시, 한국YWCA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제7회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정책평가' 시상식이 열렸다.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가 주최·주관하고, 고용노동부와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11개 수상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정책평가' 시상식은 2019년에 제정된 이래, 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민·관 거버넌스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까지 7회째 운영되고 있다. 평가는 전문기관이 설계한 「지방자치단체 사

회적경제 정책평가 지표」를 기반으로 심사를 통해 이뤄진다. △정책기반 정비 △지원 수준 △정책 성과 △거버넌스 등 4개 영역, 총 17개 세부 지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제출 자료를 전문가 심사위원이 검토하고 심사숙고하여 수상자 자체를 선정한다.

2025년 고용노동부 장관상은 경기도 광명시가 수상했다. 광명시는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을 넘어 조례·제도 정비, 전용 공간 확충, 지역화폐 활용, 복지 서비스 연계, 시민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등 지역 생태계를 촘촘히 설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상임 공동대표상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서울시 성북구가 수상하

였으며,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상은 전라남도과 서울시 금천구가 받았다. 이 밖에도 △정책성과 우수상(경북 영주시, 대구 달서구, 광주 북구) △정책기반 우수상(서울시 은평구) △지원체계 우수상(경기도 시흥시) △거버넌스 우수상(서울시 관악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상하였다.


시민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평가하는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시민의 생활환경, 복지, 안전, 지역 경제 등 일상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력, 그리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점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시민단체가 '평가'를 기획하고 참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조직이 함께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 변화를 촉구한다.

2023년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던 서울시 은평구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상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평가에 참여하고 있는데, 평가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정책을 점검·보완하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평가가 단순한 순위 경쟁이 아니라 정책 개선을 촉진하는 시스템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정책 평가'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시행하는 평가가 아니라 시민사회·전문가·현장 조직이 함께 수행하는 독립적·객관적 평가라는 점에서 높은 신뢰성을 가진다. 둘째, 다양한 전문기관과 협력해 만든 4개 분야 17개 지표가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 기준으로 작동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학습을 촉진하고, 그동안 사회적경제 정책을 소극적으로 다루던 지방자치단체에도 정책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셋째, 평가 항목은 단순 실적 중심이 아닌 질적 지표 중심으로 구성되어 구조적·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변화를 이끈다. 넷째, 평가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중간지원 조직·현장 조직이 함께 자료를 정리하고 정책을 검토하면서 자연스럽게 민·관 협력 구조가 재정비되고, 정책 피드백 시스템이 구축된다.

시민단체가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축의 주요 역할 담당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의 지방자치단체 정책 평가는 단순한 행정 성과 측정을 넘어, 지역이 실제로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우리 지역과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하고, 더 살기 좋고, 더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발전하는 일, 이러한 변화와 성장을 현장에서 촉진하는 중심에는 시민단체가 있다.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소개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는 정부·기업·시민사회·사회적경제 조직이 협력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조직의 자립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설립된 전국 단위 민·관 네트워크다. 기존 민·관 네트워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조직을 가진 한국YWCA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YMCA전국연맹과 고용노동부의 주축으로 설립했으며 후원 모금을 위한 부속기관으로 (사)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사회적경제활

성화전국네트워크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시민단체 대표 1인이 상임공동대표를 맡는 구조로, 현재 15개 지역네트워크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YWCA가 참여하는 지역은 대구(대구YWCA), 충북(청주YWCA), 인천(인천YWCA), 제주(서귀포YWCA) 등이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0조 '업종·지역 및 전국 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에 근거한 공식 민·관 네트워크로서 2024년부터 한국YWCA연합회가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예술을 통해 청년과 연결되기



YWCA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는 올해로 4년째 진행되고 있다. 2022년 (사)한국YWCA연합회가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시작한 청년지원공모사업이다. 2022년에는 13개 팀의 청소년과 청년을 지원하였고, 2023년부터는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여성청년활동가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고백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여성청년활동가들을 지원하게 되었다. '고백'이라는 이름은 앞으로 100명의 여성청년 활동가를 지원하겠다는 'Go-100'의 의미와 후원을 통해 청년들에게 후원자들의 마음을 '고백'한다는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YWCA는 <YWCA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이 스스로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를 실천하며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여성 프로듀서 콜렉티브 '구현'

공연예술·로컬·다원예술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여성 프로듀서 콜렉티브 '구현'은 2023년 결성 이후, 다양한 사람들이 예술을 접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4년에는 특히 '장애예술과 접근성'을 중심 주제로 삼아 실험을 시작했다. 팀원들은 재난, 환경, 여성, 장애, 지역 등 우리 사회의 여러 현안에 꾸준히 관심을 두고 있으며, 문화예술을 통해 질문을 던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업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이번 고백 프로젝트에서는 엄마와 딸, 예술가,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삶을 다루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엄마가 소녀였을 때'라는 제목의 이 프로그램은 작가인 어머니가 함께 참여하여, '엄마'라는 이름 뒤에 가려졌던 기억과 감정을 예술적으로 되짚어보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3회차에 걸친 만남



에서 참가자들은 자신의 유년기와 동네,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미니어처 제작을 통해 어린 시절의 자화상을 시각적으로 재구성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자기 회복, 정체성 재정립, 여성 간의 새로운 연대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안녕교회 '안녕, 교회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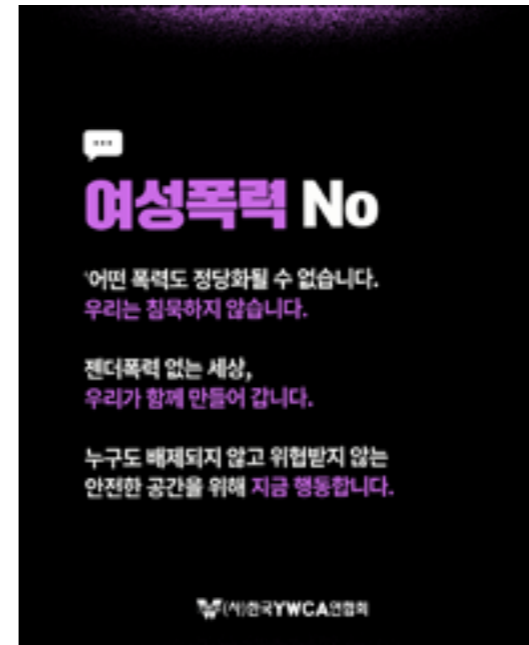
서울 서초구 안녕교회에서 시작된 '안녕, 교회학교!' 팀은 "어린이도 예배의 모든 자리에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교육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현재 많은 한국 교회학교의 커리큘럼은 유아·영아의 발달 단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성차별적 요소나 배타적 신앙 해석, 다양성과 평등에 대한 낮은 감수성 등 여러 한계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안녕, 교회학교!'는 교회 밖으로 열린 신앙을 지향하며, 에큐메니컬 시선 위에서 다양성·정의·평등을 품은 하나님의 세계를 어린이에게 전할 새로운 교육자료를 만들고자 동요, 펠트 자료 등 반복 활용 가능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했다. 완성된 교육책자와 펠트 자료는 추후 SNS를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향후 더 많은 교회와 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확산을 준비하고 있다.

'고백 스튜디오' 진행

올해 고백 프로젝트의 마무리는 예년과 달리 '고백 스튜

디오'라는 이름으로 색다르게 열렸다. 11월 22일(토), 한국YWCA연합회에서 진행된 이번 스튜디오는 토크쇼 형식으로 구성되어, 참가자·후원자·프로젝트 매니저가 한 자리에 모여 그동안 걸은 시간들을 차분히 돌아보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각 팀이 어떤 질문을 붙들고 프로젝트를 시작했는지, 과정 속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그리고 이 활동이 앞으로의 삶과 운동에 어떤 가능성을 남겼는지 자연스러운 대화가 나누어졌다. 토크쇼 이후에는 프로젝트 과정에서 미처 나누지 못했던 소감과 배움, 서로에게 힘이 되었던 순간들을 편안하게 공유하며 한 해의 활동을 정리하였다. 안녕교회 팀의 한 팀원은 "YWCA의 좋은 프로그램들이 더 많은 청년에게 알려지기 위해서는 가벼운 진입 경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어느 단계든 처음에는 진입장벽이 있다. 여기가 어디까지 다양성을 포용하는지가 한 눈에 보이지 않으니 주저하게 되는데, 많은 청년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특히 역사가 깊은 단체일수록 편견도 함께 따라오니, 이를 낮추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눠주었다. 참가자들은 고백 프로젝트가 초대의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시도들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확장되기를 기대했다. 매년 작업한 아카이빙 영상은 YWCA KOREA 유튜브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년에도 여성청년활동가 지원은 또 다른 모습으로 계속될 예정이다.

세대가 함께 디지털 폭력 끝내기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의 역사적 배경

11월 25일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은 전 세계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더 이상 개인의 고통이 아닌 인류 공동의 과제로 인식하고 행동하기 위해 유엔(UN)이 공식 지정한 국제 기념일이다.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은 도미니카 공화국의 독재 정권에 저항하던 미라발 자매가 1960년 11월 25일에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되었다. 이 사건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특정 개인의 범죄를 넘어 국가적 폭력이나 구조적 폭력임을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하는 전

환점이 되었다. 각국의 여성운동, 국제기구의 노력을 통해 이 날을 중심으로 폭력 철폐를 위한 다양한 행동과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국제적인 흐름에 동참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여성폭력추방주간으로 지정해서 기념하고 있다.

심화되는 여성폭력과 디지털 성폭력의 현실

오늘날 여성폭력은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가정폭력·성폭력·교제 폭력 등 신체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회적 비난과 2차 피해가 피해자의 삶을 위협하는 경우도 많다. 여기에 최근 몇 년 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디지털 성폭력은 짧은 시간 안에 광범위한 피해를 남기며, 피해 영상물의 재유포와 온라인 괴롭힘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피해자를 장기간 고통 속에 놓이게 한다.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한번 유포되면 완전한 삭제가 어렵고,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영상이 다시 등장하는 사례가 많아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특히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과 온라인 플랫폼 이용률이 매우 높은 사회로, 10대·20대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한국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4건 중 1건은 온라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딥페이크 합성 성착취물 피해건수는 2023년 423건에서 2024년 1,384건으로 3.3배 증가하였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78.7%가 10·20대 여성이다. 청소년

구현

제목 <엄마가 소녀였을 때>에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싶으셨나요?

준비 과정에서 '엄마도, 이모도, 할머니도 모두 소녀였다'는 문장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제목만 보았을 때 어린 시절의 모습을 직관적으로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눈앞의 현실에 몰두하느라 어린 시절을 돌아볼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 제목이나 기획을 접하면서 잠시라도 자신의 소녀 시절을 떠올려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정하게 된 제목입니다.

문화예술적 접근(그림, 나누기)이 어떤 힘을 가진다고 느끼시나요?

저희 팀원 모두 예술을 전공했지만, 예술이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업계에 오래 있을수록 예술이 과하게 포장

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프로젝트는 일상의 작은 실천을 통해 활기를 느끼게 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예술은 나의 일상을 조금 더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매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확장하거나 이어가고 싶으신가요?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누구를 위해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컸습니다. 앞으로는 더 다양한 엄마들, 그리고 엄마와 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확장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에서 프로젝트를 주로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문화예술 경험이 낮은 분들을 직접 찾아가 경험을 전해주려는 것을 목표이자 꿈으로 두고 있습니다.

안녕, 교회학교!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제작하는 교재와 동요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기존 교회학교 교육에서 충분히 다루지 않았던 다양성을 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직관적 요소를 강화했고, 특히 영유아 발달 단계를 고려한 구성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놀이 형태를 활용해 아이들의 흥미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또한 신앙 교육 안에서 여러 해석이 가능하도록 열린 구조를 지향했습니다.

문화예술적 접근(그림, 나누기)이 어떤 힘을 가진다고 느끼시나요?

문화예술은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열어주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이들은 시각적·촉각적 자료를 통해 경험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림·만들기·손유희·인형극 같은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활용될

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신앙적 내용도 예술 활동을 통해 몸으로 경험하고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문화예술적 접근이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YWCA 여성청년활동가 지원사업으로 함께하게 된 의미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안녕교회에서 교회학교를 시작하면서, 교회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교회에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YWCA가 다양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함께한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지원사업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교육자료를 준비할 수 있었고, 그 과정이 저희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후원자 이야기

YWCA가 왜 여성청년활동가를 후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구현' 팀을 보면서 한국사회에서 어머니 세대는 반추하거나 자신을 돌아볼 여유 없이 살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을 딸 세대가 예술을 통해 다시 꺼내주고 회복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모습이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안녕교회' 팀의 경우에는 돈이나 시간만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 청년 세대의 관점과 감수성으로만 가능한 시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청년들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한국YWCA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YWCA가 이 지원사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YWCA가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청년들을 지원함으로써, "우리가 함께한다면 어떤 새로운 Y가 만들어질까?"라

는 질문을 품게 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새로운 청년운동의 접근 방식을 탐색하는 과정이었고, 이미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 연결되면서 하나의 공동체로 확장되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청년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에서 본 프로젝트는 어떤 의미였나요?

지금은 청년운동의 패러다임 자체를 새롭게 고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고백 프로젝트는 지역과 전국 곳곳에 다양한 삶의 형태로 존재하는 청년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특히 사회 이슈를 문화예술적으로 풀어내는 시도들은 앞으로 더 확장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모여, 청년들과 YWCA가 만나고 이어지는 새로운 운동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강릉·거제·광양·광주·김해·남원·대전·목포·부산·서귀포·서울·수원·의정부·익산·제천·제주·창원·천안YWCA

년 협박성 촬영 강요, 불법 촬영물 유포 위협, 온라인 스톱킹 등 피해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예방 체계는 피해 확산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검은 목요일 캠페인(Thursdays in Black)

여성폭력에 대한 연대 운동의 하나로 세계YWCA와 세계교회협의회(WCC)가 중심이 되어 진행해온 ‘검은 목요일(Thursdays in Black)’ 캠페인은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 이 캠페인은 1970-80년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여성들이 인종차별과 국가폭력 속에서 성폭력을 고발하며 검은 옷을 입고 침묵 시위를 벌였던 운동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어 유고슬라비아 전쟁 당시 전쟁과 무장갈등 속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항의하며 검은 옷을 착용한 여성들의 행동이 국제적 연대의 한 축을 형성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기반으로 세계YWCA에서는 매주 목요일을 폭력 저항의 날로 정하고 검은 옷을 입는 행위를 통해 침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발전시켰다. 검은 색은 애도의 메시지를 담는 동시에, 더 이상 폭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사회적 선언을 상징한다.

‘세대가 함께 디지털 폭력 끝내기 행동’을 주제로

검은 목요일 캠페인 진행

한국YWCA는 오랜 기간 세계YWCA 운동과 함께하며 ‘검은 목요일 캠페인’에 꾸준히 참여해왔다. 올해 캠페인 주제는 세계YWCA가 주도하는 글로벌 16일 행동(16 Days of Activism)의 핵심 메시징인 ‘세대가 함께 디지털 폭력 끝내기 행동’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실천한 것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디지털 성폭력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국YWCA와 회원YWCA는 여성폭력추방주간 목요일(11월 27일)에 각 지역에서 검은 옷을 착용하고 폭력 반대 메

시지가 적힌 손팻말을 든 사진을 촬영해 SNS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디지털 폭력은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사회 구조 젠더 권력·법 제도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사회 전체가 법과 제도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함을 아래 네 가지의 내용을 담아 함께 목소리를 냈다.

- ① 온라인 플랫폼 콘텐츠 모니터링 차단 의무부과, 미이행 시 제재 강화
- ② 피해자 지원 전담기관 전문 인력 예산 대폭 확대
- ③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인지 교육, AI 윤리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 ④ 해외 플랫폼과 강제력 있는 협력 체계 구축

이번 캠페인에는 연합회와 강릉·거제·광양·광주·김해·남원·대전·목포·부산·서귀포·서울·수원·의정부·익산·제천·제주·창원·천안YWCA 등 18개 회원YWCA가 참여하였다. 한국YWCA는 올해의 연대를 계기로, 앞으로도 디지털 안전 교육, 성평등 인식 개선 등의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 성폭력 문제는 법·기술·교육·사회 인식 등 다층적인 대응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복합적 과제이며, 사회 구성원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 세대가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어렵고 공동체적 보호망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성폭력은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와 문화를 바꾸어야 해결되는 사회적 과제이다. 매주 목요일 검은 옷을 입는 작은 행동을 통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쌓아가는 연대의 경험은 폭력없는 사회를 향한 의미있는 발걸음이다. 이번 여성폭력추방주간 동안 한국YWCA가 보여준 목소리와 참여는 디지털 시대의 폭력에 맞서기 위한 새로운 연대의 출발점이 되었다.

사랑의 옷을 입고, 다시 함께 걷다



2025년 11월 10일(월), 서울YWCA 대강당에서는 한국YWCA연합회·서울YWCA·한국YMCA전국연맹이 함께 주관한 '세계YWCA·YMCA 국제친선 및 기도주간 연합예배'가 열렸다. 올해로 150주년을 맞은 공동 기도주간의 의미를 나누고, 두 단체가 이어온 운동의 흐름을 되돌아보는 자리였다.

예배에는 각 기관의 임원과 실무자 100여 명이 참석해 기도주간의 취지와 국제연대의 역사적 맥락을 함께 살폈다. 참석자들은 찬양과 말씀, 기도로 마음을 모으며, 150년에 걸쳐 이어져 온 두 운동의 협력 전통을 다시 확인하고 앞으로의 연대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150년의 기도 실천, 다시 확인한 연대의 힘

세계YWCA와 세계YMCA는 세계 에큐메니칼 기독교

년 운동단체로 매년 11월 둘째 주를 '국제친선 및 기도주간'으로 지켜왔다. 2025년은 세계YWCA와 세계YMCA가 1875년 공동 기도주간을 선포한 이래 150년이 되는 해로, 올해 기도주간의 주제는 '희년, 150년 기도실천의 여정 (JUBILEE: 150 Years of Prayer in Action)'이다.

희년은 성경에서 빛을 탐감하고 땅을 쉬게 하며, 억눌린 이들을 해방하는 '회복과 새로움의 해'를 의미한다. 한국의 YWCA·YMCA 구성원들은 '희년'의 의미를 묵상하며 150년 간 이어져온 연대의 여정을 깊이 기억했다.

사랑의 옷을 입으라 — 김지선 목사의 메시지

올해 설교는 미국 인디애나주의 Earlham School of Religion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지선(Grace Ji-Sun Kim) 목사가 맡았다. 김지선 목사는 '사랑의 빛'이라는 제



목 아래 시편 119편 30-40절과 로마서 13장 8-14절을 통해 시대의 분열과 갈등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선택해야 할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전했다.

김 목사는 어린 시절 겪었던 인종차별 경험을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했다. 그는 바울이 로마교회에 편지를 쓰던 당시에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이 존재했음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바울이 "서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권면한 메시지의 의미를 강조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사랑을 위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빛의 갑옷, 사랑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깨어 있는 실천을 뜻합니다."

김 목사는 혐오와 배제가 확산되는 시대 속에서, YWCA와 YMCA가 먼저 사랑을 선택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주기도문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고백 역시, "내 왕국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도전이자 결단이라고 전했다.

서로를 잇는 찬양과 기도, 그리고 축복

연합예배를 통해 100여 명의 참석자들은 한 마음으로 평화의 기도·호흡의 기도를 울리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함께 구했다.


이어진 특송 시간에는 한국YWCA연합회, 서울YWCA, 한국YMCA전국연맹이 함께 구성한 연합찬양팀이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를 불러 따뜻한 울림으로 채웠다.

봉헌금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교육 환경을 잃은 청소년들을 위한 '희망의 학교' 건립 지원금으로 전달되었다.

예배는 김지선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되었으며, 참석자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는 묵상문을 함께 읽으며 예배를 정리했다.

한국 YWCA·YMCA가 만들어갈 다음 150년

예배가 끝난 뒤에는 한국YWCA연합회, 서울YWCA, 한국YMCA전국연맹이 서로의 최근 활동을 공유하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을지 이야기하는 교제의 시간이 이어졌다. 각 기관은 서로 다른 지역과 환경에서 활동해 왔지만, 정의·평화·생명이라는 같은 가치를 지향하며 꾸준히 연대해 왔고, 이번 연합예배는 그 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150년 전, 세계YWCA와 세계YMCA가 공동 기도주간을 선포하며 시작한 기도의 흐름은 세대와 지역을 넘어 계속 이어져 왔다. 2025 세계YWCA·YMCA 국제친선 및 기도주간과 연합예배는 150년의 기도와 연대를 딛고, 두 운동이 앞으로 어떤 시대를 향해 나아갈지 함께 상상하게 하는 시간이 되었다. 

청소년이 제도를 움직이다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 제·개정운동 1년

한국YWCA의 청소년을 일컫는 Y-틴 전국협의회는 청소년 스스로 한 해의 운동 주제를 정하고 실행하는 독립적인 전국협의회체다. 올해 Y-틴들이 탐구한 질문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역사적이며 오래된 물음이었다. “우리는 왜, 지금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기억하고 행동해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은 2024년 한국 사회가 겪은 위기 속에서 다시 선명해졌다. 당시 전국 곳곳에서 소녀상이 훼손되는 사건이 이어졌고, 동시에 여러 해 동안 반복되던 담페이크 성범죄 문제도 계속해서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켰다.

청소년들은 이 사건들을 단절된 이슈로 보지 않았다. 과거의 성착취를 은폐하거나 기억을 희미하게 만드는 시도, 여성·청소년의 몸을 대상으로 삼는 최신의 디지털 성범죄 모두 약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동일한 폭력 구조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이해하였다. 그래서 Y-틴들은 올해의 중점운동 주제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일’로 선택했다.

Y-틴 전국협의회는 이 주제를 바탕으로 전국연대행동을 논의했고, 가장 많은 공감을 모은 의제는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 제·개정 운동’이었다. 전국 10개 지역(광주·논산·대구·대전·서울·안산·울산·인천·청주·충주)이 함께 이 운동을 펼치기로 결의했다.

각 지역 소녀상 설치 실태 현장조사 결과는 놀라웠다. 10개 지역 모두 관리대상과 점검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고, 올해 4곳에서 실제 훼손이 발생했음에도 대응 체계는 부재했다. 8월 전국 과정 공유회에서 각 지역의 사례를 함



께 나누며 조례의 필요성과 방향성이 명확해졌고, 연합인원들은 실제로 조례(안) 초안 작성 작업을 시작했다. 책임주체, 관리·점검 체계, 예산 조항 등 소녀상 관리를 제도화하는 첫 문장을 청소년들이 직접 적어 내려간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12월에 시의원 면담을 진행하였다. 청소년들은 직접 조사한 자료와 문제의식을 들고 정책결정자를 만나 조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청소년이 ‘참여자’를 넘어 ‘정책 제안자’로 성장하는 장면이었다.

올해 Y-틴의 여정은 단순한 캠페인의 기록이 아니다. 역사적 기억을 제도적 책임으로 전환하는 실천, 청소년이 직접 만든 첫 정책 모델, 전국을 묶어낸 연대의 힘이 남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확고한 결론 하나가 남는다. 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를 지키는 일은 누군가의 선의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제도적 책임이라는 사실. Y-틴은 그 책임의 첫 문장을 또렷하게 써 내려가며 한국YWCA 운동의 다음 장을 열고 있다.

인천YWCA Y-틴 운동

기억을 잇는 우리의 선택

인천YWCA Y-틴 평화의 소녀상 제·개정운동은 2025년 YWCA 활동 주제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만나면서 시작되었다.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을 채운 기록과 증언, 그리고 침묵 속에 남겨진 수많은 이름들을 마주하며,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임을 느끼게 되었다. ‘기림의 날’을 맞아 문장들을 직접 고민해 피켓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들었던 피켓은 단순한 종이기가 아니라 기억을 지키려는 의지라는 사실을 실감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조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조례를 찾아보고, 다른 지역의 조례와 비교하는 과정에서 큰 혼란도 겪었다. 어떤 지역은 조례의 내용이 매우 부실한 반면, 어떤 지역은 기억과 교육, 책임을 분명히 담아낸 훌륭한 조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차이는 결국 기억을 대하는 사회의 태도 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조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우리가 만든 조례 초안은 아직 완성된 결과물은 아니다.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며 더 많은 학습과 토론, 다양한 의견 나눔이 필요하다. 그러나 Y-틴에게 이 ‘미완성의 초안’은 매우 중요한 경험이었다. 제도와 정책이 전문가나 어른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청소년 또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생각하고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임을 몸소 느끼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완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질문하고, 배우고, 고쳐 나가고 있다는 그 과정 자체였다.

우리는 단순히 역사를 ‘배우는 존재’에서 사회 문제에 질문을 던지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시민 주체’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 또한 인권 문제는 특별한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다. 용기를 내어 증언에 나섰던 할머니들, 그리고 끝내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지 못하고 사라진 이름 모를 수많은 피해자들을 기억하는 일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평화의 소녀상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참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에 질문을 던지는 상징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인천YWCA Y-틴은 평화의 소녀상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주제로 한 학습과 토론을 이어가며, 캠페인도 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사회의 제도와 정책이 어떻게 기억과 인권을 담아내고 있는지 꾸준히 살펴보고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인천YWCA Y-틴은 ‘기억을 잇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품게 되었다. 작은 행동일 지라도 연대와 공감의 쌓일 때 사회는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평화와 인권을 잇는 길 위에 계속 서 있을 것이다.

충주YWCA Y-틴 운동

기억을 지키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다

2025년 충주Y-틴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주제로 역사 조사, 인식 변화 및 지자체 조례 제·개정을 위한 운동을 펼쳤다. 특히 전국의 Y-틴 청소년들은 지역마다 평화의 소녀상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를 확인하면서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인권·평화의 과제'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충주Y-틴은 조사를 통해 2016년 충주3·1운동 기념사업회가 충주의 761명의 개인, 단체대표에게 충주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 기구 구성을 제안하였고,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 성금을 모아,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 충주시 관아골 내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여 시에 기부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충주시는 관아골상인회와 건립 및 관리 업무체결을 맺었으며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 충주시 여성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자 하였으나 정기적인 관리가 어려워 적십자 봉사단에게 월 1-2회 지역 정화 봉사 시 둘러봐 달라고 부탁해왔다.

충주Y-틴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충주시의회 이옥순 의원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충주시에 맞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날 충주Y-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평화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며, 시의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다. 충주Y-틴은 본인들이 제안하는 일본군 성노예제 관련 조례로 개정하기 위해 시의회에 제안서 제출하는 방법, 충주시 홈페이지에 개설되어 있



는 충주시장과의 대화 게시판 이용 방법 등 제안의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되었다. 충주시 소녀상 관리부서인 여성청소년과에서 '1년에 1회 소녀상을 육안 점검하고 관리 횟수도 늘리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답변도 받았다.

이의원은 "청소년들이 단순히 배우는 것을 넘어 사회문제를 직접 조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경험을 통해 민주주의 시민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번 만남은 청소년들이 지역의 인권 의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매우 중요한 기록"이라고 의미를 밝히며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고 하였다. 충주Y-틴 회원은 이번 과정을 통해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배우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고, "YWCA에서 Y-틴으로서 활동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운동"이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충주Y-틴은 일본군 성노예제와 관련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 보고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국YWCA Y-틴이 제안하는 OO시 일본군성노예(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성노예(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OO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 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성노예(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2. "평화의 소녀상"이란 OO시에 설치된 일본군성노예(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기념조형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OO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하 일본군성노예(위안부)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OO시장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① OO시장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피해사례 조사·연구 및 발굴 사업
3.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4.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국내외 공동 조사 및 교류 활동
5. 피해자를 위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 사업
6. 피해자 기림의 날 운영 및 홍보
7. 피해자에 관한 기념조형물·동상 등 보호 및 관리
8. 그 밖에 OO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OO시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OO시장은 피해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5조(기념조형물 관리 주관부서 지정) ① OO시장은 기념조형물의 훼손 방지와 유지보수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념조형물의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은 수시 순찰과 주변 환경의 청결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 지킴이단 구성·운영 등) ① OO시장은 기념조형물의 점검과 주변의 청결 및 홍보·계도를 위해 기념조형물 소재 지역의 주민자치회 또는 시민 단체를 민간 지킴이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OO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간 지킴이단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념조형물 정기 점검 등 관리) ① OO시장은 기념조형물에 대하여 월 2회 이상 상태 점검하여 필요한 보수대책이나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기념조형물이 훼손·파손된 경우 보수 및 보존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관할 읍·면·동장은 기념조형물의 훼손 여부 확인과 주변의 청결 유지를 위해 주 2회 이상 순찰을 하여야 하며, 기념조형물의 훼손 또는 훼손 위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공주시 일본군성노예(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기후변화와 식품안전, 그리고 시민실천

기후위기의 속도는 이미 우리의 일상과 식탁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상고온과 폭우, 병해충 증가 등 급변하는 기상 패턴은 농축·수산물의 생산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먹거리의 안전과 가격, 나아가 생존권 문제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시민들이 기후위기 시대의 식품안전을 새롭게 이해하고, 안전한 소비·보관·실천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 바로 '기후변화와 식품안전' 교육이다. 이 교육은 (재)식품안전상생재단의 후원으로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계속되었으며 올해 군산·남양주·논산·동해·안양·과천·군포·의왕·제천·제주·순천·진주·천안 전국 10개 지역에서 총 308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이 알아야 할 식품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생활 속 실천을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교육의 기회가 되었다.

기후위기 시대의 식품안전과 플라스틱 위기

교육의 첫 강의는 정명섭 식품위생정책연구원 원장이 진행한 '기후변화와 식품안전 이야기'였다. 이 강의는 기후위기가 식품안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냈다. 기온 상승과 습도 증가는 식중독균의 번식을 빠르게 하고, 가축 질병 증가와 농약 사용량 확대는 식품 내 잔류물질에 대한 우려를 높인다. 더불어 폭염과 홍수 같은 이상기후 상황에서는 식품 보관 온도를 철저히 관리하고, 냉장고 보관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소비기한을 정확히 이

해하는 등 생활 속 실천이 중요해진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기존의 식품안전 기준을 흔들고 있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소비자가 스스로 위험요인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두 번째 강의는 이윤숙 여성환경연대 부설 에코페미니즘연구소 연구위원의 '플라스틱 감축과 재활용'이었다. 이 강의는 플라스틱이 생산에서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며, 1950년대 이후 급증한 생산량과 9%에 불과한 재활용률이 심각한 환경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다로 흘러든 플라스틱은 5조 개가 넘는 미세입자로 생태계에 축적되고 인간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는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정책은 잦은 유예로 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 플라스틱 문제는 개인의 선택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생활 속 실천의 중요성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재활용 체계를 갖춘 순환경제로 전환해야 지속가능한 미래가 가능함을 강조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 안전 인식 조사결과

교육 후 실시된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 안전 인식 조사' 결과는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참여자 대다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식품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전체 응답자의 약 92%가 이에 동의했다. 안전한 먹거리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응답도 8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식품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



는 전망에는 92% 이상이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친환경 식품을 구매하겠다는 의향도 높게 나타나, 절반 이상이 '그렇다', 34%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기후위기로 인해 가장 우려되는 요인으로는 농약 사용량 증가가 1순위로 꼽혔으며, 이어 가축 질병 증가와 농산물의 중금속 오염 등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들이 기후위기가 식품의 질, 가격, 안전성 전반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이미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이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았으며, 친환경·저탄소 식품 확대 정책과 기후위기 관련 교육 강화가 우선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응답해 정책적·사회적 대응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두 강의 모두 만족도가 92.4%로 높게 나타났으며, 참여자들은 기후위기가 식품안전을 좌우하는 정도를 처음 알게 되었다는 점,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과 보관법·소비기한 이해가 큰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한편으로는 영상이나 사례 자료를 더 보완해 달라는 요구, 참여 대

상에 따른 맞춤형 구성, 직접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 등 개선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결과는 전체 참여자의 98%가 생활습관을 개선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부분이다. 이는 냉장고 관리, 소비기한을 고려한 식품 선택, 분리배출 실천의 정확도 향상, 플라스틱 사용 절감 등 일상적 행동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함을 보여주며, 이번 교육이 시민의 인식 변화뿐 아니라 실천 의지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한국YWCA가 지난 2년간 진행한 '기후변화와 식품안전' 교육은 시민들이 기후위기와 식품안전의 연결성을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이끄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한국YWCA의 중점사업인 '성평등한 기후정의운동'과 연계하여 '식품안전과 기후환경교육'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는 시민들의 일상 속 작은 실천을 확산시키는 운동과 함께, 지속가능한 먹거리와 기후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운동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세계의 주인>, '윤가은 월드'는 어떻게 넓어지는가

'윤가은 월드'의 아이들은 곳곳하게 자란다. 난생처음 집 밖으로의 '나 홀로 모험'을 감행했던 단편 <콩나물>(2013)의 일곱 살 보리(김수안)부터, 또래 관계의 애착과 갈등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던 <우리들>(2016)의 열한 살 선(최수인)을 거쳐, 유년의 한 시기와 완전히 결별하는 <우리집>(2019)의 열두 살 하나(김나연)까지, 윤가은 감독 영화의 소녀들은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점점 성숙해진다. 그리고 6년 만의 신작 <세계의 주인>(2025)에서는 어느새 훌쩍 커버린 열여덟 살 주인(서수빈)이 등장했다. '윤가은 월드' 유년기 주인공들의 모습을 마트료시카처럼 품은 주인은 그만큼 더 깊고 넓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윤가은 월드'의 확장판

영화는 시작부터 어른의 세계에 성큼 가까워진 아이들을 보여준다. 남자 친구와 열렬히 키스를 나누는 주인의 첫 등장 신은 10대들의 성적 욕망과 혈기 왕성함을 생생하게 드러낸다. 뒤이은 운동장 신에서도 '성장'은 관찰된다.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아이의 소외감을 담아냈던 <우리들>의 운동장과 달리, <세계의 주인>의 운동장은 친구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며 관계를 주도하는 성숙한 소녀의 생기로 가득하다. 주인은 또래 집단을 넘어 어른들과도 사이가 좋다. 엄마 태선(장혜진), 담임 교사 보아(이상희), 태권도장 관장 대한(이대연), 봉사 모임 선배 미도(고민시) 등 주변 어른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는 주인의 모습은 제법 어른스럽다.

하지만 여기가 '윤가은 월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세계는 일관되게 화사한 색감이 강조된 포스터처럼 밝고 따뜻해 보이지만, 실은 어두운 현실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곳이기도 하다. 윤가은 감독은 학교 폭력, 계급 격차, 가족 해체, 편견과 차별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아이들의 관계와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섬세하게 포착하고 탁월한 이야기로 담아낸다. 아이들은 그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현실과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자신의 세계를 넓혀나가는 삶의 주체로 그려진다. 말하자면 '윤가은 월드'는 그 치열한 모험과 여정 위에 놓인 아이들의 생존기이자 성장기라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세계의 주인>은 한층 불편하고 잔혹한 폭력을 다룬다. 관객들이 명랑 소녀 주인의 일상에 몰입할 즈음, 주인은 자신이 성폭력 생존자임을 직접 밝힌다. 그때부터 관객들은 영화 초반부터 감독이 섬세하게 배치해 둔 복선과 의문점들을 되돌아보게 된다. 주인의 반 친구 수호(김정식)네 동네 벽에 칠해진 거친 낙서, 아동 성폭력 범죄자 출소 소식에 분노하는 학생들, 엄마 태선의 알코올 의존증, 아빠의 부재와 침묵 등 주인의 발랄한 일상이 불쑥불쑥 존재감을 드러낸 폭력의 상흔들을.

그리고 새로운 의문이 따라온다. 주인의 과거사를 알고 난 뒤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친구들 처럼, '중중 과도해 보였던 주인의 활발함은 상처를 감추려는 노력은 아니었을까?'라고 되묻게 되는 것이다. 이를 대변하듯 주인에게 익명의 편지가 계속 날아든다. '인싸?

관중? 허언증? 거짓말쟁이? 이주인, 뭐가 진짜 너야?' 편지는 '피해자다움'이라는 고정관념을 넘어선 존재 앞에서 당황스러워하는 우리 사회의 편견을 비춘다. 김은숙 작가의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에서 가정폭력 생존자 현남(염혜란)이 외친, "난 매 맞지만 명랑한 년이에요"라는 유명한 대사처럼, 모든 사람은 입체적이고 다면적이다. <세계의 주인>은 여기에 한창 정체성을 완성하게 탐구하는 청소년기 주인공을 내세움으로써 한층 더 역동적인 생존자 서사를 완성한다.

성폭력 생존자 서사의 진화

<세계의 주인>은 '윤가은 월드'의 확장인 동시에 성폭력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이끈 여성주의 운동의 진화를 보여준 작품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가 성범죄를 정조 관념 안에서 인식하던 시기에서 벗어나 인권 개념에서 바라보게 된 것은 1990년대부터다.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고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이 공론화되는 등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면서 김유진 감독의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1990), 변영주 감독의 <낮은 목소리> 3부작(1993-1999)과 같이 성폭력을 정면으로 다룬 작품들이 잇달아 등장하며 화제를 모았다.


2000년대 이후에는 교제 폭력, 스토킹 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성폭력의 개념과 범위가 넓어지고 공론화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관련 소재 영화도 대폭 증가한다. 이윤기 감독의 <여자 정혜>(2005), 이창동 감독의 <시>(2010), 황동혁 감독의 <도가니>(2011), 김용한 감독의 <돈크라이 마미>(2012), 이준익 감독의 <소원>(2013) 등이 대표적이다. 이같은 작품 대부분은 성폭력 피해자를 대리해서 복수하거나 반성, 치유의 서사를 그려냈다. <여자 정혜>는 예외적으로 성폭력 생존자 당사자의 목소리를 다뤘음에도, 상처가 강조된 피해자 서사에 머물러 아쉬움을 남겼다.

이러한 와중에 2014년 개봉한 이수진 감독의 <한공주>

는 새로운 경향성을 보여준 작품으로 기록된다. 2004년 밀양여중생집단성폭력 사건을 모티브로 한 이 작품은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사회적 편견 등 기존 작품들의 문제의식을 이어가면서 생존자의 서사에 초점을 맞춰 호평 받았다. "저는 잘못된 게 없는데요"라는 영화의 첫 대사 에서 드러나듯 이 작품은 피해자의 생존의지에 주목하고 그를 향한 응원과 연대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이야기를 선보였다.

2010년대 후반부터는 미투(MeToo) 운동의 등장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성폭력 생존자 서사가 더욱 다양해진다. 성폭력이 여성 모두가 직면한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보통 사람들의 연대와 공감대'가 강조되었다.

<세계의 주인>은 이 같은 사회적 흐름 안에서 탄생한 작품이다. '나다움'을 고민하는 청소년의 보편적 성장담과 성폭력 생존자 서사가 구분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합쳐진다. 어린 시절 삼촌의 성폭력을 알아차리지 못한 아빠와 엄마에게 불쑥불쑥 원망이 치밀어 오르고, 친구들의 달라진 태도가 서운하고, 익명의 편지가 소름 돋지만, 주인은 여전히 사랑을 주고받고 싶고 진로도 찾고 싶은 활기찬 청소년이다. 아직 남은 상처에 아파하면서도 동시에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주인이 마침내 희망 진로 칸에 '사랑'이라고 적어내는 장면은 그의 성장을 확인시켜주며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전달한다.

무엇보다 오래 기억해야 할 신은 마지막 장면일 것이다. 이 신은 <한공주> 시대와의 차이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두 작품은 모두 여러 명의 목소리로 주인공에게 말을 건네며 끝을 맺는 공통점을 지녔다. 그러나 주인공과 응원자가 분리된 <한공주>와 다르게, <세계의 주인>의 목소리들은 '나 또한 너'라고 이야기한다. 응원에서 공감으로 변화한 생존자 서사, 연대 서사의 진화다. '주인, 세계와 하나가 된다'는 각본집의 마지막 문장처럼 '윤가은 월드' 또한 그렇게 우리의 세계가 되었다. 

2025 금융인사이드아웃



한국YWCA연합회는 지역 내 다문화가족 아동과 부모의 금융 이해력과 금융생활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금융 인사이트아웃' 사업을 추진했다. 본 사업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부천·수원·안산·안양과 천군포의왕·인천YWCA와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참여했다. 정서지능을 기반으로 한 체험형 금융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된 이번 사업은 아동 3,500명에게 다양한 생활 상황별 금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올바른 금융습관 형성을 지원했다.

또한 300명의 부모와 이주당사자를 대상으로한 가족단위 교육 실시 전후 감사 양성, 지역별 연구모임 및 코칭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아동·부모용 교안과 정서기반 카드게임 등 총 28종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 하였다.

11월 월례아침기도회



11월 월례아침기도회가 11월 3일(월) 오전 9시 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열렸다. 이날 임성빈 목사(한국리더십학교장)는 창세기 1장 26~28절을 본문으로 '땅에서 매고 푸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설교의 메시지를 나누며 한국YWCA가 목적과 정체성에 따라 정의·평화·생명을 지키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함께 기도했다.

제1725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한국YWCA연합회 주관으로 제1725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11월 5일(수)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이번 시위에는 인천YWCA Y-틴 강나연 회장과 고양YWCA 함윤희 사무총장이 연대발언자로 참여해, 청소년과 지역YWCA가 소녀상 보호·



관리 조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참가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전시 성폭력이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역사 부정 중단을 요구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와 지방정부에 피해자 보호 및 기억 공간 보존을 위한 법·조례 정비를 촉구하고, 국제사회에는 전시 성폭력 근절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한국YWCA는 앞으로도 피해자 존엄 회복과 기억 보존을 위한 시민연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5 제3차 YWCA 운동이슈브리핑



한국YWCA는 10개 회원YWCA, 연합회 활동가 등 총 32명이 참여한 가운데 11월 14일(금) 제3차 '운동이슈브리핑'을 진행하였다. 운동이슈브리핑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된 후의 한국사회와 향후 성평등 운동에 미칠 영향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기후위기대응에 미흡한 이유, 고리 2호기 수명연장 결정의 비민주성과 위험성을 공유하고 앞으로 지속될 노후핵발전소 연장심사에 대해 공동대응할 것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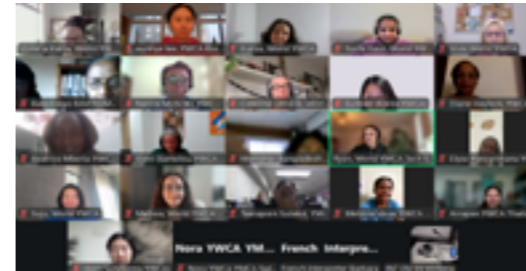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묶인 비영리·공익법인,' 출판기념 국회토론회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묶인 비영리·공익법인,' 출판기념 국회토

론회가 11월 18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한국YWCA연합회와 재단법인 동천, 이학영 국회의원, 국회 시민정치포럼(송재봉 책임연구위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비영리법인 및 시민단체 활동가, 회계사,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묶인 비영리·공익법인,' 저자들이 발제를 맡았고, 국무총리비서실 관계자와 시민사회중간지원조직 및 현장활동가가 토론에 참여해 비영리·공익법인을 둘러싼 복잡한 현행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한목소리로 개선이 필요함을 논의했다.

세계YWCA Sharing & Learning Session



세계YWCA는 11월 26일(수) 회원국YWCA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Sharing & Learning 세션을 진행했다. 한국YWCA연합회에서는 국제협력, 청년, 청소년 운동을 담당하는 활동가들이 그리스, 방글라데시, 벨리즈 등 10여 개국 YWCA 활동가 30여 명과 함께 참석했다. 이번 세션에서는 세계YWCA의 전략 담당자가 YWCA 운동의 주요 도구인 '페미니스트 연구방법론(Feminist Consultation Methodology)', 'Rise Up! 여성 리더십', '세대 간 리더십(The Intergenerational Triangle)' 등을 소개했다. 이어 회원국YWCA 활동가들이 YWCA의 핵심 가치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많은 활동가들은 YWCA의 핵심 가치로 여성 청년의 참여,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환대하는 공간, 여성의 역량 강화 등을 뽑았다. 세계YWCA는 2026년 상반기에 주요 도구들을 각각 활용하는 방법과 실제 회원국YWCA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험을 나누는 세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4차 YWCA의료공론플랫폼



한국YWCA연합회는 11월 27일(목) 한국YWCA연합회 A스페이스와 온라인 중에서 '의료와 돌봄의 경계를 넘어 시민이 바라는 의료시스템'을 주제로 4차 의료공론플랫폼을 개최했다. 안정희 소비자운동팀책임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공론장은 장지훈 공드림 통합돌봄센터장과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가 각각 지역사회 통합 돌봄 과제와 병원 중심 구조를 넘어선 지역 기반 의료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강의했다. 참가자들은 투표와 소그룹 토론을 통해 재택 의료 확대, 다학제 협력, 디지털 기반 진료 정보 공유체계 구축, 지역 의료 격차 해소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은영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2026년에는 의료 주제 이외에 다양한 이슈의 YWCA공론장을 확대할 예정이며, 응급의료, 의료사고 안전망 등 시급한 주제의 의료공론장도 계속 이어 나갈 것임을 밝혔다. YWCA의료공론플랫폼은 올해 총 4회에 걸쳐 시민투표와 시민대화를 통해 의료시스템에 대해 학습하고,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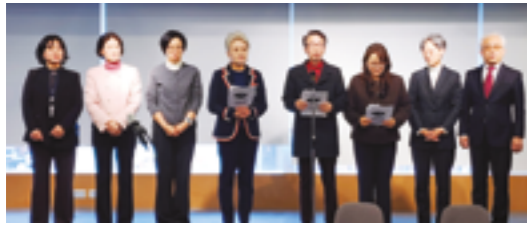
제5차 YWCA 회원정책 연구모임



11월 28일(금) 정오, 제5차 YWCA 회원정책 연구모임이 진행되었다. 올해 연구모임에서는 회원모집과 회원활동성 강화를 위해 8개 회원YWCA의 포커스그룹 인터뷰, 워크숍을 통해 기존 회원관리 매뉴얼을 업데이트하고 회원 유지와 관리방법을 포함한 <2025 YWCA 회원관리 매뉴얼>을 제작하기로 하였다. 제5차 연구모임에서는 매뉴얼을 최종 검토하고, 지난 2년간의 연구모임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함께 나누었으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정을 다해 연구모임에 참석한 모든 위원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4~2025 YWCA 회원정책 연구모임'의 결과물인 <2025 YWCA 회원관리 매뉴얼>은 공문과 함께 PDF 파일로 배포하였으며, Y-NET 자료실을 통해 상시 열람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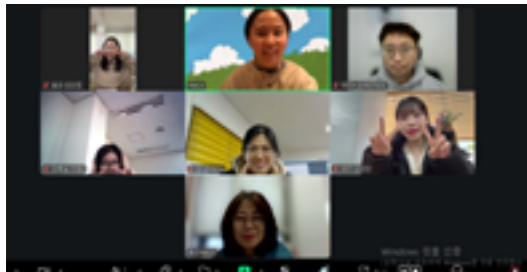
'병원전단계 응급환자안전사건' 해결을 위한 국가 시스템 혁신 제안 기자회견

한국YWCA연합회가 공동대표로 참여하는 의료공동행동은 12월 1일(월) 오후 2시, 한국YWCA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잇따른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병원전단계 응급환자안전사건으로 규정하며 국가 차원의 응급의료체계 전면 혁신을 요구했다.



강희경 공동대표의 인사말로 시작한 이 행사는 어은경 순천향대 응급의학과 교수,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조은영 한국YWCA연합회 회장의 성명서 낭독과 질의응답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날 공동행동은 성명서에서 △보건의료부-행정안전부 협력 기반의 응급의료·환자정보 통합체계 구축 △진료권역 중심 지역 책임형 응급의료체계 도입 △실시간 응급의료정보·통신 혁신 △공적 보상체계와 환자안전조사기구 신설 △국무총리실 산하 재난응급안전처 설치 등을 핵심으로 한 5대 국가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2026 Y-틴 드림십 설명회 개최



한국YWCA연합회는 12월 4일(목), 회원YWCA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2026 Y-틴 드림십 프로그램 설명회를 진행했다. 드림십은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당사자형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교류와 탐방,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시민성·연대·평화·안전한 공간(Safe Space)의 가치를 배우고 성장하는 Y-틴의 대표 사업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드림십의 기획 취지와 운영 방식, 2026년 프로그램 구성 방향이 소개되었다. 국내·국외 팀 구성 방식, 사전·본 프로그램·사후활동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운영 방식 등 실제 참여 과정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여러 회원YWCA에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쿠팡 개인정보유출 규탄과 대책 촉구 기자회견담회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에서 약 3,4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며 소비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YWCA연합회가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쿠팡의 무책임한 대응을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소협은 12월 1일(월) 국회 앞 12월 2일(화) 국회 소통관에서 연일 문제 해결을 위해 쿠팡, 정부가 나서 소비자, 소상공인의 피해보상과 예방책 강구,



철저한 조사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12월 8일(월) 오후 1시에는 쿠팡 한국 본사 앞에서 소비자 요구안을 직접 전달하고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쿠팡에 △유출 원인·규모 투명 공개 △실질적 피해배상안 마련 △정부의 강력한 조사·제재 △소비자 3법(집단소송법·징벌적 손해배상·인증책임전환) 통과 촉구 등을 요구했다. 현재도 쿠팡이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어 회원탈퇴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창립 60주년 기념유공자 표창



12월 8일(월), 국제청소년센터에서 열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에서 활동가 이은혜 간사와 Y-틴 청소년 이은우(전 전국협의회 회장)와 강경화(현 전국협의회 부회장) 총 3명이 유공자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 60년간 우리 사회의 청소년활동을 이끌어온 여러 단체와 활동가들의 노고를 되새기고, 앞으로의 청소년운동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국YWCA연합회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지역사회와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025 한국YWCA연합회 성탄예배



한국YWCA연합회 성탄예배가 12월 10일(수) 오후 2시 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열렸다. 이번 예배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한국YWCA가 '연대와 공감으로 이루는 평화'의 사명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히브리서 2장 14~18절을 본문으로 김장한 주교(대한성공회 서울교구장)가 '연대와 공감으로 이루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서우·이은혜·양하은 연합회 실무활동가들이 특별찬양을 올렸다.

YWCA은학의집 직원송별예배와 폐원



한국YWCA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에 개관해 25년간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해온 YWCA은학의집이 새로운 비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잠시 문을 닫는다. 사회복지법인 YWCA복지사업단(이사장 이종임)은 12월 10일(수) 오후 6시 30분 갈보리교회 김병권 목사를 모시고 은학의집 직원송별예배를 개최했다. 박은실 상임이사는 송별예배에서 그간 요양시설, 방문요양, 주간보호사업 등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존엄한 노년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헌신해온 직원들에 감사를 나누며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마음을 전했다. 은학의집은 추후, 제2기 은학의집 재개관을 위해 노후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초고령화 시대에 선도적인 시니어 주거복지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공간으로 변화될 예정이다.

세종호텔 정리하고 철회를 위한 거리기도회와 활동가 중무예배



장 공공농성 307일, 세종호텔 정리하고 철회를 위한 115차 거리기도회'를 2025년 활동가 중무예배로 드렸다. 이번 예배는 장기화된 공공농성과 정리하고 문제 속에서 노동의 존엄과 연대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YWCA연합회 박은애 이사장의 연대 발언과 이사·활동가들의 연대 특송으로 함께했다. 한국YWCA는 지난 5월부터 매

주 주일 저녁 희망도시락 전달로 함께하였으며, 지난 성탄예배 헌금과 '희망도시락' 모금을 통해 모인 연대금 1,872,000원을 고진수 지부장 공공농성장에 전달했다.

Y-틴 드림십 × 청년 실험 아카이브 서로의 세계를 나누는 세대 공동 보고회



한국YWCA연합회는 12월 20일(토) 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Y-틴 드림십 참가자, YWCA 청년정책연구TF 주관 청년 실험 프로젝트 참가자, 해당 회원YWCA 청소년·청년 담당 실무활동가, 연합회 박은애 이사, 박은실 사무총장을 비롯한 활동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서는 Y-틴 드림십(목포, 순천, 전주, 대구, 창원, 통영YWCA)에 참여한 청소년의 발표와 청년정책연구TF 실험 및 YWCA 국제프로그램, 고백프로젝트에 참여한 청년의 발표, 드림십·청년운동 아카이브 전시, 소감 나눔이 있었다. 보고회는 세계시민성·연대·책임·참여라는 YWCA 공동가치를 중심으로 청소년과 청년이 함께 배움을 나누는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서로의 질문·경험·배움을 이어갈 것을 다짐하였다.

고립은둔청년 금융교육 공로로 서울시장상 수상



한국YWCA연합회는 12월 22일(월)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5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회복과 성장 성과공유회에서 2년간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 청년정책 유공 시민으로 선정되어 서울시장상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금융 이해력 향상과 금융 정서 회복을 통해 고립은둔 청년의 자립과 사회 복귀를 지원해 온 공로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한국YWCA연합회는 앞으로도 청년의 삶과 회복을 지원하는 실천적 교육과 연대를 이어갈 계획이다.

북한어린이돕기 모금

2025.01.01 ~ 2025.12.20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개인	강승아 강현중 고보경 고세영 고양우 광지역 구정혜 국유탉 권경미 김가현 김근혜 김기동 김대식 김명희 김병호 김수진 김애련 김영자 김영현 김주영 김주현 김진영 나착더르즈 돌림수렌 남궁혜경 남희숙 문미란 문상순 문인수 민선영 박은실 박진화 배인기 배정미 배창빈 배한울 백혜진 송록희 송인호 신인숙 심은옥 양정심 엄세현 오시창 원영희 유도희 유민 유수 유성희 윤명선 윤수정 이민정 이예림 이은영 이정숙 이종경 이종임 이지윤 이천진 이혜련 이희숙 이희정 임진영 전정미 정경란 정동신 정서연 정지유 조승환 조영미 조은영 진인식 차경애 최수산나 최지영 하은경 하지원 한영수 홍기자	10,520,000원
단체	(사)대전YWCA (사)목포YWCA (사)부산YWCA	1,448,910원
합계		11,968,910원

YWCA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 - go100 모금

2025.3.1 ~ 2025.12.20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개인	구정혜 김은경 김수진 배옥희 손지수 송록희 유성희 이주영 차민규 SUSAN S LEE	3,196,403원
단체	럭스나인	3,000,000원
합계		6,196,403원

Y-틴 전국 연대행동

2025. 7. 1 ~ 2025. 12. 20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개인	김영자 박윤애 삼거리치킨 서해원 이수진 이은혜 이주영 임재형 장어옥 장정영 최수산나	1,170,000원

청(소)년 활동지원금

2025.01.01~2025.12.20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개인	구정혜 김병찬 김형남 남궁혜경 박동순 배정미 배창빈 배한울 신성균 양영심 원서영 조한울	1,590,000원

한국YWCA연합회 후원

2025.01.01 ~ 2025.12.20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개인	강경숙 강희경 광수현 광지역 구정혜 김경숙 김연희 김영순 김유현 김은경 김익태 김진영 김효정 민자현 박은경 박은실 백수경 손영태 손은혜 신인숙 안정희 유성희 이신선 이은영 이종임 이혜련 이혜련 전진숙 정다빈 정동신 조경진 조은영 차경애 최현자 한만희 한선현 한영수 함희경 홍현정	16,699,800원
단체	(주)가온인스(GAON INS CO. Ltd), (주)조우코크리에이션, 시온이민컨설팅 유한책임회사, 재단법인 동천, 기아 주식회사	24,575,000원
합계		41,274,800원

미안마 희망학교 모금

2025.12.20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개인	(사)한국YWCA 연합회 (사)서울YWCA (사)성남YWCA (사)세종YWCA (사)수원YWCA 한국YMCA전국연맹	1,765,000원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 위한 고공농성 고진수님 희망도시락 후원자

2025.05.01 ~ 2025.12.20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개인	강경숙 구정혜 김수진 김연희 김영자 김정신 노은아 박동순 박동순 박윤애 박혜숙 박희정 박효정 반혜영 배정미 서해원 손은정 이신선 이예림 이은영 이주영 이혜련 이희숙 임진영 정근혜 최지영 한규영 홍수진 2025성탄예배 헌금	1,872,000원
희망 도시락 배달	김미애 김서우 남궁혜경 박윤애 박동순 박은실 박진화 손예지 송록희 안정희 이수진 이은영 이은혜 이주영 조은영 이혜련 이희숙 이희정 정서연 조은영 최수산나 최유주 추은지 홍수진	
합계		1,872,000원

경인·강원권역

(사)강릉YWCA

김가는 간사

사회초년생 똑똑한 소비자교육



강릉YWCA는 11월 17일(월)과 18일(화), 강일여자고등학교에서 청소년들의 실생활 소비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초년생 소비자교육을 진행하였다. 1회차에서는 기초 금융 이해 교육을, 2회차는 실제 사회에서 접하게 될 문서들을 분석하며 청소년 권리 보호 능력 강화를, 3회차에서는 디지털 환경 속 소비자 위험을 다루어 비판적 소비 감각과 사기 예방 역량을 높였다. 4회차는 실습 활동으로 실제 약관 비교와 보험 조건 분석 활동은 학생들의 호응을 얻으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수능 이후 첫 특강을 들은 학생들은 “앞으로 사회생활에 꼭 필요할 것 같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사)동해YWCA

정미숙 팀장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광역협의회 활동보고회



동해YWCA는 11월 20일(목) 강원특별자치도청 별관 4층 대강당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광역협의회 활동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강원특별자치도 15개 시·군에서 활동 중인 19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소속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각 지역 감시단은 한 해 동안 실시한 청소년유해환경 감시 활동 보고를 넘어 청소년 유해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사)서울YWCA

성지희 부장

저출생 시대 성평등 돌봄사회로의 전환 토론회



서울YWCA는 '일가정 양립'과 '성평등 돌봄사회'를 주제로 한 토론회 「저출생 시대, 성평등 돌봄사회로의 전환-가족과 일터의 해법」을 10월 24일(금) 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관련 연구를 수행한 신경아 교수(한림대 사회학과)와 이은아 교수(이화여대 여성학과)의 연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신혼부부 여성과 남성 당사자의 목소리도 직접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발제자와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정부 관계자도 참여해 시민과 함께 정책 토론회를 이어가며, '저출생의 닻에서 벗어나려면, 육아휴직 사용 의무화·난임휴직 도입·노동시간 단축 등 실질적인 돌봄사회로의 시스템 전환이 급선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사)속초YWCA

김다미 팀장

2025 속초YWCA 바자회 '만나다(만남과 나눔을 잇는 다리)'



속초YWCA는 지난 11월 8일(토) 조양감리교회에서 '만나다(만남과 나눔을 잇는 다리)'를 주제로 2025 속초YWCA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번 바자회는 청소년 운동, 기후정의 환경운동, 성평등운동 등 속초YWCA 목적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되었다. 바자회에서는 여러 후원 업체에서 제공한 물품을 비롯해 개인이 기증한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다. 또한 비닐봉투 대신 소핑백 재사용과 장바구니 이용을 실천하며 환경 보호에 동참했다. 이번 행사는 물품 기증과 재사용을 기반으로 속초YWCA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후정의 환경운동에 회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한 뜻깊은 자리였다.

(사)원주YWCA

윤미혜 사무총장

원주 통일시민대학

원주YWCA는 11월 4일(화)부터 11월 18일(화)까지 '제3기 통일시민대학'을 총 7회차로 진행하였다. 이명신 통일과 생명 대표가 '북한의 식량 안보'에 대해 강의했고 다양한 분야의 7명의 전문 강사들의 초청 강의를 통해 남북 간 인식 격차를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통일시민대학'은 북한 실상을 바로 알고 이해를 넓히고, 통일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사)인천YWCA

문지혜 팀장

인천YWCA합창단 제21회 정기연주회

인천YWCA는 10월 21일(화), 자립준비청년 지원과 YWCA 목적사업을 위한 인천YWCA합창단 제21회 정기연주회 '함께 걸어 갈'을 시민 및 내외빈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연주회는 자립준비청년을 비롯해 불안한 일상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며 인천YWCA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청년들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며 더욱 풍성한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경기권역**(사)고양YWCA**

정니은 간사

고양YWCA 창립36주년 감사예배

10월 30일(목) 고양YWCA 강당에서 고양YWCA 창립36주년 창립



예배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부는 '예배의 부름', '찬송: 은혜', '기도: 김용주 회장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19~21절'이 있었고, 2부에는 김용주 회장의 감사 인사말, 축하케이크 커팅식을 진행하였다. 김용주 고양YWCA 회장은 "올해로 창립 36주년을 맞이한 고양YWCA는 회원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 성장하고,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새로운 도약을 이어가고자 한다"며 의지를 밝혔다.

(사)남양주YWCA

이종은 팀장

취약계층 찾아가는 소비자 동행

남양주YWCA는 2025년 경기도 소비자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어 6월부터 11월에 남양주, 구리지역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찾아가 소비자 교육을 총 25회 진행하였다.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은 보이스피싱과 각종 소비자 피해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실제로 의심 전화, 문자를 즉시 차단하거나 가족과 상의하는 등 사전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사업 중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비자상담센터 1372를 홍보하는 캠페인을 3회를 진행하였다. 올 한해 남양주YWCA는 소비자교육을 활발히 추진한 결과, 지역 내 소비자 피해 예방 인식이 향상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사)부천YWCA

김승현 대학청년Y 회원

서로돌봄을 위한 행복한 하루 찾집

부천YWCA는 11월 27일(목) 부천여성청소년센터에서 '서로돌봄을



위한 행복한 하루 찾집을 진행하였다. 본 행사는 여성고령화와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가사관리사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로 돌보며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자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부천YWCA는 업무부스에서 도움이나 돌봄, 주변에서 느낄 수 있었던 훈훈한 마음들을 생각하며 업무에 고마움을 담는 시간을 가졌고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사)성남YWCA

장명자 사무총장

'지속가능한 돌봄 포럼'

성남YWCA는 11월 28일(금) '지속가능한 돌봄, 사회적경제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 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현재의 돌봄 위기가 돌봄 노동의 저평가와 공공성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임을 짚으며, 돌봄을 지역 공동의 가치로 바라보는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남YWCA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돌봄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여러 주체들과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수원YWCA

이민정 팀장

여성X인권 북콘서트

수원YWCA는 11월 26일(수), 좋은아침 페스티벌 화석역대유공공원 점에서 여성과 인권을 주제로 한 여성X인권 북콘서트를 진행했다.



이날 북콘서트에는 '캔버스를 찢고 나온 여자들'의 저자 이유리 작가가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 예술가들의 삶과 창작의 의미를 깊이 있게 전하며 시대의 제약 속에서도 자신만의 세계를 펼쳐낸 여성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행사에는 수원시민 70여 명이 참여해 강연, 질의응답,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따뜻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사)안산YWCA

홍지인 국장

안산YWCA 회원한마음대회

안산YWCA는 11월 3일(월), 회원 40여 명과 함께 가평 자라섬 일대에서 '회원한마음대회'를 진행했다. 가을 햇살 아래 황톳길을 걸으며 회원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쉬어가는 치유의 시간을 보냈다. 걷기 후에는 따뜻한 티타임과 함께 YWCA를 이해할 수 있는 소그룹 게임을 진행해 회원들 간의 친밀감이 더욱 깊어지는 시간을 보냈다. 이번 회원한마음대회는 단순한 야외 활동을 넘어, 회원 간의 유대와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사)안양과천군포의왕YWCA

김영미 간사

시민이 만드는 평화세상 특강

(사)안양과천군포의왕YWCA는 11월 11일(화), 안양YWCA 회관에서 최수산나 전 연합회 활동가의 '시민이 만드는 평화세상'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한반도 중심의 평화통일 운동의 역사와 기독교 및 여성들이 펼친 평화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평화운동에 대해 생각하며 의견을 나눴다. 특강 후 이사, 위원, 실무활동가, 일반시민 30여 명과 함께 회관 주변을 돌며 플로깅과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의정부YWCA

이세인 간사

의정부YWCA '기후정의 흘러가게' 행사



의정부YWCA는 11월 15일(토) 문화재단 이음홀에서 '기후정의 흘러가게' 행사를 진행하였다.

행사는 기후운동 및 참여기금 구조로 전환하여 탄소배출 감축 기후 운동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아나바다 상점은 재사용 실천, 채식밥상은 탄소배출 감축의 친환경 식문화 확산, 미싱수선 체험은 순환경제, 그린캐버스는 기후아트 캠페인으로 진행했다.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감이 적은 물품이 내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YWCA로부터 시민들에게 흘러갔다.

(사)파주YWCA

김래원 팀장

파주YWCA 2025 후원의 밤

파주YWCA는 11월 18일(화), 문산행복센터 소공연장에서 지역사회와 회원, 후원자들이 함께하는 '2025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의 활동을 공유하고 YWCA 시민운동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1부 '감사와 축하의 시간'에서는 윤경애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광실 사무총장의 사회 아래 내빈이 소개되었다. 2부는 엘피스실버합창단, 거룩한 향기 워십팀, 소리나눔 음악봉사단의 공연으로 참석자들에게 따뜻한 감사와 감동을 선사했다.

이어 열린 수공예 작품 전시·판매회에서는 회원과 시민들이 서로 소통하며 후원에 참여하였다. 파주YWCA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평택YWCA

이은영 부장

평택YWCA 홀몸 어르신 '36.5°C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평택YWCA는 11월 22일(토), 다가오는 겨울을 맞아 청소년과 성인 자원봉사자 등 40여 명이 동참해 36.5°C 사랑의 연탄나눔봉사를 진행했다. 지원 대상자인 어르신은 "올겨울은 많이 춥다고 해서 겨울 나기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을 했는데 평택YWCA 도움을 받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어서 고맙다"고 하시며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다. 연탄나눔봉사에 참여한 청소년 학생들은 "추운 겨울 어려운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연탄을 나누게 되어 보람차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평택YWCA는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 매년 연탄 봉사를 진행해왔으며, 앞으로도 이웃들과 따뜻한 온기를 함께 나누고 실천할 예정이다.

충청권역

(사)논산YWCA

진희 간사

시니어와 함께하는 친환경 실천프로그램



논산YWCA는 10월 23일(목)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세도노인재가 복지센터에서 '시니어와 함께하는 친환경 실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선보인 '고래가 춤추는 바다' 그림자 인형극은 고래가 어획용 그물에 걸려 꼬리를 잃고 가족과 떨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내용을 담은 이야기이다. 과거 어르신들이 지켜온 생활 속 절약과 환경 실천을 언급하며 현재의 환경 상황을 설명하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어 친환경 소재인 소창행주 꾸미기 활동이 진행돼 스탬프 찍기와 바느질 체험이 이루어졌다. 작은 바늘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친환경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사)대전YWCA

안소진 팀장

함께 만드는 깨끗한 대청호, 분리배출 교육



대전YWCA는 11월 19일(수), 대전시 동구 세천동 경로당에서 세천동 주민 16명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환경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은 우리가 지켜야 할 대청호의 자연을 떠올려보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대청호 그리기' 활동으로 시작하였다. 주민들은 자주 찾는 곳

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며 대청호의 자연환경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분리배출 교육에서는 일상에서 헛갈리기 쉬운 분리수거 방법을 중심으로 안내가 이루어졌다.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영농폐기물 처리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관련 활동을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한 방향도 함께 논의한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사)제천YWCA

김미경 국장

어르신들의 합리적 소비생활을 위한 소비자 교육



제천YWCA는 실버대학,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 320명을 대상으로 11월 13일(목)부터 20일(목)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어르신들의 합리적 소비생활을 위한 소비자 교육'이란 주제로 소비자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이동통신, 건강기능식품, 금융사기 등 실생활에서 어르신들의 피해가 집중된 분야로 구성되어 참여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앞으로는 스스로 지킬 수 있겠다는 자신감과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전화해야 하는지 알게 되어 든든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안전한 소비생활을 돕기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천안YWCA

곽효정 팀장

2025 회원증모대회 및 ESG 공모전 시상식



천안YWCA는 11월 27일(목) 천안YWCA 강당에서 '2025 회원증모

대회 및 ESG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최다 인원 증모 상, 최대 금액 증모상 등 다양한 부문의 수상자를 시상했다. YWCA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들을 시민들이 일상에서 고민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획된 ESG 공모전은 13개의 작품이 선정되었으며, 수상자들은 ESG 가치에 대한 창의적 접근과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공감 능력을 보여주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천안YWCA는 앞으로도 회원 증모 확대, ESG 가치 확산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와의 연대활동 등 다양한 운동을 지속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사)청주YWCA

한기연 부장

'세계여성폭력추방' 평화 추모예배



청주YWCA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충북여교역자회와 공동으로 11월 25일(화) 북문교회에서 세계여성폭력추방주년을 맞아 '침묵을 깨고 생명을 말하다'를 주제로 평화 추모예배를 열었다.

예배는 오세란 예술공장 두레 전 이사장의 퍼포먼스 '침묵을 깨는 시작의 몸짓'으로 시작됐고, 이어 백은주 목사(현암교회)의 인도로 촛불 점화와 묵상이 진행됐다. 연주팀은 '기억의 울림'을 연주하며 추모의 분위기를 더했다. 구연형 목사(소명교회)는 시편 34편 말씀으로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다"며 폭력 피해자와 함께 서는 신앙의 책임을 강조했다.

오은숙 청주YWCA 회장은 "폭력 예방과 평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사회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사)충주YWCA

이인선 간사

충주YWCA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예배

충주YWCA는 비전을 품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지역 내 작은 교회와 개척 교회를 찾아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11월 16일(일) 오후 4시 충주터교회를 방문하여 김상룡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충주YWCA 합창단과 찬무단의 특별 찬송으로 깊은 은혜의 시간을 가지며 성도들과 영적인 위로와 힘을 나눴다. '충주YWCA와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 지역 내 신앙 공동체가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성장하며, 연대와 섬김의 정신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파할 것을 믿



고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

경상권역

(사)거제YWCA

박숙혜 간사

거제YWCA 노인일자리 해단식 소양교육



거제YWCA는 11월 28일(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마지막 해단식과 소양교육을 거제시노동복지회관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에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140여 명이 참석해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웰다잉(Well-Dying)'이라는 주제의 소양 교육으로 삶을 다시 돌아보고 남은 인생을 준비해보는 기회를 가졌고, 거기에 치매 예방을 위한 '박수치기 활동'을 곁들이며 즐겁게 교육을 마무리하였다. 거제YWCA는 내년에도 더 발전된 일자리 사업과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김해YWCA

이지현 사무총장

어르신 동화구연가 양성

김해YWCA는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농촌어르신들을 위한 동화구연가양성사업에 참여하여 5명의 동화구연가를 양성하였다. 10월 15일(수)에 진례화전마을회관에서 열린 동화구연가양성사업 수료식에서는 김해YWCA 전문가의 지도하에 성인동화구연대회에 나가 우수한 성적을 거둔 5명의 동화구연가가 수료했다.



어르신들은 향후 이야기할머니 동아리를 결성하여 경로당과 도서관을 돌며 순회공연을 할 계획이다. 김해YWCA는 어르신들의 자신감 회복과 치매예방, 지속가능한 노인사회활동 및 재능기부 구조를 마련하고자 김해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와 협약을 맺었다. 앞으로 김해YWCA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교육과 평생교육을 더 활발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사)대구YWCA

정필선 간사

대구YWCA 대구사랑 걷기 행사



10월 25일(토) 대구 신천둔치 대봉교 체육광장에서 '대구사랑 걷기' 행사에 지역 시민 200여 명과 함께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도심 속 생태공간인 신천을 따라 경대교까지 왕복 8.38km구간을 함께 걸으며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고민했다. 참가자들은 곳곳마다 설치된 다양한 기후행동 슬로건을 보며, "작은 실천의 중요성과 우리의 행동이 지구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대구YWCA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 위기 대응 운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사)마산YWCA

이애라 사무총장

Y로축제 Re:start Earth

11월 29일(토), 회관 3층 대강당에서 지역청소년들과 함께하는 'Y로 축제'가 열렸다. 'Re:start Earth' 주제로 환경퀴즈 풀기, 압화캘�피



만들기 등 체험부스와 먹거리 부스에 참여하고 옷장 속 입지 않은 새옷, 잡화, 화장품을 3점 이상 가지고 와서 다른 물품과 교환하는 지속가능한 의생활 실천을 위한 의류교환 파티도 함께 진행하였다. 동아대태권도팀의 태권도 시범과 청소년 댄스동아리의 열정적인 무대로 즐겁고 신나는 시간을 가졌다.

(사)울산YWCA

권한별 팀장

성착취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함께)다(행복한) 카페



울산YWCA는 11월 14일(금), 태화교회 히즈카페에서 '성착취 피해자 지원기금 마련을 위한 다(함께)다(행복한)카페'를 개최했다. 부속시설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성매매 피해여성지원시설 씨밀레와 함께 준비한 본 행사는 성착취 피해자들의 회복과 자립을 위한 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울산YWCA 김태경 회장은 "성착취 문제는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이며,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될 현실이다. 단순한 모금 행사 이상으로써 성착취 근절을 위한 사회적 책임과 연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행사의 취지와 소감을 전했다. 울산YWCA는 앞으로도 성착취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하고 심리적, 사회적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부산YWCA

신정은 간사

부산YWCA 79주년 기념 생명·평화 음악회

부산YWCA는 11월 4일(화) 오후 7시 30분, 경성대학교 콘서트홀에서 79주년 기념 생명·평화 음악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아주 보통의 하루'를 개최했다. 부산YWCA 김혜진 회장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클래식 공연이 진행됐다. 부산YWCA 회원과 부산시민 400여 명이 참석하였다. 부대행사로는 포토존과 업사이클링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부산YWCA의 운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2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이번 클래식 음악회를 통해 지난해와 올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주 보통의 하루가 주는 소중함에 공감하며 희망을 나눌 수 있었다.

(사)안동YWCA

남수정 간사

'지구'는 일회용이 아니야 환경교육

안동YWCA는 10월 31일(금) 안동시 일직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 지구는 일회용이 아니야'라는 주제의 환경교육을 진행했다. 안동 환경연합활동가의 이론수업으로 산업화와 그 부작용에 대해 교육한 후 일회용품이 주는 피해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쓰레기가 많이 발생됨으로 생기는 문제에 대해 학생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한 지구촌 여러 곳의 피해 모습을 보여 기후위기를 늦추기 위한 실천방법을 학생들과 함께 찾아냈다. 일회용품은 줄이고 ' 지구는 일회용이 아님'을 다 같이 선포하며 함께 지구를 위한 실천을 다짐했다.

(사)양산YWCA

성정미 간사

지역농산물 생산지 사과따기 체험

양산YWCA는 10월 30일(목), 밀양 일대에서 '생활환경실천사업 지역농산물 생산지 체험(사과 따기 체험)'을 진행하였다. 양산시민 3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지역 농산물의 생산·유통·물류 과정을 시민들이 직접 보고 체험함으로써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도왔다. 특히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함으로써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체험활동 과정에서 버려질 수 있는 자원을 재활용하며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생활 속 실천도 병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범시민적 친환경 운동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주YWCA

윤인주 간사

진주YWCA 활동응원의 날

진주YWCA는 11월 27일(목) 진주상평산단혁신지원센터 1층 실버카페 '더 하모니'에서 2025 진주YWCA 활동응원의 날을 열었다. 올해 활동응원 찾집의 주요 테마는 끼니되는 찾집으로써 국내산 재료를 활용하여 손님들을 대접했다. 활동응원 찾집 한편에는 진주YWCA의 활동을 알리기 위하여 각 활동들의 소개가 적힌 피켓과 함께 응원인 증표를 찍는 YWCA 응원포토존 부스도 마련했다. 진주YWCA의 활동을 알리는 것에 목표를 둔 활동응원 찾집에 지역민과 회원, 연대단

체 등 많은 분들이 찾아와 진주지역에서의 YWCA 활동을 응원받을 수 있는 감사의 시간이 되었다.

(사)진해YWCA

김방현 간사

창원복지박람회 부스 운영

10월 25일(토) 11시 진해루에서 시민과 함께 찾아가는 창원 복지 홍보 목적의 창원복지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진해YWCA는 양말목 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업사이클링에 대한 소개와 기후위기에 관련한 부스를 운영했다. 자칫 버려질 수 있는 양말목을 다시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신기해하며 체험을 하는 모습에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체험부스를 운영하며 시민들과 기후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진해YWCA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이 기후위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사)통영YWCA

변은실 부장

태초먹거리 기본교육

통영YWCA는 11월 18일(화) 오후 2시에 통영시농업기술센터에서 '태초먹거리, 기본이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총남대 명예교수이신 이계호 교수를 모시고 초청 강연회를 가졌다. 200여 명의 통영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계호 교수는 우리의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물, 소금, 고기, 발효식품의 4가지 기본 상식과 실천을 통해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자고 하였다.

통영YWCA는 '생명의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의 슬로건으로 우리

땅 살리기 운동과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앞으로도 통영YWCA는 우리 먹거리의 소중함과 건강을 위한 상식을 통영시민들에게 알리는 강연회와 활동을 펼쳐나가고자 한다.

(사)포항YWCA

이예린 부장

여성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한 경주 역사문화탐방

포항YWCA는 11월 8일(토) 여성 외국인 근로자와 자녀 40명과 함께 APEC 개최도시인 경주를 체험하는 역사문화탐방을 진행했다. 행사는 YWCA 회관에서 산업안전교육과 노동관련교육을 시작으로, 이후 경주로 이동해 대릉원을 방문, 신라의 유적을 돌아보며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였다. 참가자들은 이번 활동을 통해 경주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접해보는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본 탐방은 여성 외국인 근로자와 그 자녀들이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높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사)창원YWCA

황유림 간사

2026년 환경달력 전시회

창원YWCA 수채화 동아리 회원들은 2026년 환경달력을 제작했다. '내가 그린 그린(Green) 그림'이라는 주제로 매월의 달력 속에 있는 환경 기념일을 그림으로 표현했고, 그림을 그리는 과정 속에서 회원들은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됐다.

제작된 달력으로 11월 11일(화)부터 14일(금)까지 4일간 전시회를 개

최했으며,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무료배포를 하고 달력 제작의 취지와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을 전했다. 전시회에서 환경기념일에 관한 시민의식 조사를 실시했는데, 환경보전과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지켜야겠다는 개인적 실천 의지가 높아졌다는 응답이 60% 이상이었다.

전라·제주권역

(사)광양YWCA

이효진 팀장

함께한 35년, 함께 여는 50년



광양YWCA는 지난 10월 16일(목) 광양시새마을금고 1층 MG갤러리에서 회원들과 조은영 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내빈 등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YWCA 창립 35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1부에서는 축하공연과 감사예배가 진행되며 지난 35주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 기념식에서는 35주년 기념영상 상영으로 생명·평화·정의의 가치를 따라 걸어온 광양YWCA의 발자취를 돌아보았다.

광양YWCA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속에서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공동체로서 5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사)광주YWCA

조승리 과장

광주YWCA 성평등아카데미 개최

광주YWCA는 전남대학교 젠더연구소와 함께 '성평등 아카데미'를 개최해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젠더·기후·국제이주·여성권리 등 다양한 의제를 심도 있게 다룬다. 광주YWCA 활동가들은 에코페미니즘, 교차성 관점의 국제이주, 라틴아메리카 여성운동, 여성과 재산권 등의 강의를 통해 성평등 관점을 확장했다. 광주YWCA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성인지 감수성 제고, 차별



예방, 지속가능한 공동체 문화 형성 등 성평등운동의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군산YWCA

주미소 간사

2025년 기후환경에너지학교 '지구를 지켜요!'



군산YWCA에서는 2025년 맞춤형 기후환경에너지학교 '지구를 지켜요!'를 주제로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20곳, 아동 약 400여 명에게 환경교육을 진행하였다.

지구가 뜨거워지며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보고 우리가 지구를 돕고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다짐과 일회용품 줄이기 위한 텀블러 보냉백 꾸미기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교육이 미래 세대가 환경에 대한 존중과 생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남원YWCA

박희정 팀장

2025년 노인 소비자교육

남원YWCA는 11월 21일(금) 오전 10시에 남원시동부노인복지관에서 노인 41명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을 실시하였다. 노인상조보험, 건강식품, 핸드폰에 대한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대처 방법을 안내하였다. 법률적 어려운 용어들은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추어 풀어서 쉽게 설명해 주기도 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특히, 상품을 거래할 경우 과대 선물, 과대광고에 주의하여 선택할 것을 당부하였



다. 노인을 대상으로 불법 거래가 사라지고 건강한 소비생활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사)목포YWCA

박혜림 부장

목포YWCA 여성 리더십 향상 교육



목포YWCA는 2025 전라남도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일환으로 여성들의 리더십을 향상 시키고 성별고정 관념을 타파하고자 10월 31일(금)과 11월 3일(월) 양일간 총 3회의 교육과 체험을 진행하였다. '우리창 천장이 28! 우리의 리더십'이라는 주제의 교육을 통해 성인 지 감수성과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배우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리더십의 방향을 모색했다. '드릴을 잡는 손에 성별은 없습니다'라는 주제로 목공 체험을 실시하여, 목공은 남자의 일이라는 고정관념을 넘어 직접 만들고 배우는 즐거움을 느꼈다. 참가자들은 모두가 도전할 수 있는 세상과 성평등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사)서귀포YWCA

한영아 간사

시민참여단과 함께하는 '안심귀갓길' 조성 민관경 합동모니터링 활동

서귀포YWCA는 11월 21일(금) 오후 5시 30분, 서귀포YWCA, 서귀포경찰서, 송산동 안전협의회, 서귀포YWCA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20여 명이 참여한 민관경 합동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은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그룹별로 각 지역에서 활동하며 지표별 모니터링, 안전지도 표시, 안심귀갓길 및 여성친화도시 홍보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이날 모니터링은 조명시설 및 시야확보



상태, 방범시설 현황 등을 점검했다. 시민참여단은 직접 안심비상벨을 눌러 관제센터와 통신상태를 확인하고, 지역 안전협의체는 보도블럭 파손상태 등을 꼼꼼히 체크하며 지역의 안전을 살폈다.

(사)순천YWCA

신정은 간사

순천YWCA-YMCA 연합예배



11월 25일(화), 순천YWCA와 YMCA가 세계 지도주간 150주년을 맞아 '회년, 150년: 기도 실천의 여정'을 주제로 특별한 기도 실천에 나섰다. 이번 주제는 성경적 회년의 의미인 해방·회복·새로움을 기도와 행동으로 이어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1부 연합예배에는 약 4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환대'를 주제로 한 우리교회 임종환 목사의 말씀을 나눴고, 미안마 '희망의학교'를 위한 헌금 봉헌도 하며 국제적 연대와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150년 역사를 함께한 끈끈한 연대를 되새기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순천YWCA와 YMCA는 지역 사회와 함께 150년 기도의 전통을 이어가며, 회복과 해방을 선포하는 연대를 다짐했다.

(사)여수YWCA

주자연 간사

여성폭력추방주간기념 여성영화상영회

여수YWCA는 11월 27일(목) CGV 여수웅천점에서 여성폭력추방주간기념 '여성영화상영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여성영화상영회는 여성폭력추방주간 의미를 알고 폭력 없는 안전한 일상, 존중이 빛나는 사회라는 주제에 맞춰 과거 여성폭력의 온산인 일본군성노예



제를 바로알고 양성평등 지역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은 “지난 역사를 잊지 않도록 기회를 주어 매우 고맙고 요즘 시대에 일어나는 여성폭력에 대한 내용도 알려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시민이 함께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올바른 역사와 인권의식이 확립된 지역사회 조성에 여수YWCA가 함께 할 것이다.

(사)익산YWCA 윤명희 사무총장

보듬콘-관계로 잇는 숲봄 페스티벌



익산YWCA는 익산시 교육발전특구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2025년 청소년 참여형 콘텐츠 프로젝트 '보듬콘-관계로 잇는 숲봄 페스티벌'을 처음으로 시도하였다. 공모전에서 청소년들은 학교·가정·또래 관계 속 고민과 희망을 짧은 영상에 진솔하게 담아 출품하였다. 11월 8일(토) 익산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받은 김은겸 학생은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메시지를 담고 싶었다.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도 많은 것을 배우는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익산YWCA는 앞으로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문화를 확산하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사)전주YWCA 손예지 팀장

전주YWCA 청년과 함께하는 기후환경 축제
전주YWCA 대학청년Y 동아리는 11월 7일(금) 전주 풍남문광장 일대



에서 '기후환경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YWCA의 가치와 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며 환경 보호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전주시민 100여 명이 참여해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함께 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전주YWCA 대학청년Y 동아리 회장은 “우리가 직접 기획하고 참여했던 이번 축제를 계기로 시민들이 환경 실천을 생활 속에서 이어가길 바란다”고 소감을 나누었다. 앞으로도 전주YWCA는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청년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사)제주YWCA 황록소 간사

2025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단합대회



제주YWCA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간사 및 대표단체로서 11월 11일(화) 거로마운동장에서 '2025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단합대회'를 운영하며 참여했다. 이번 단합대회에는 연대회의 회원단체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참가자들은 서로 다른 단체에서 활동하지만 회원단체 간 친밀감을 쌓고, 연대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끼며 현장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의 활력을 느끼게 되었다. 제주YWCA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간사단체로서 앞으로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 증진을 위해 협력사업과 연대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5 <한국YWCA> 목차 색인

이달의 생각

제목	필자	호	쪽
연대하는 용기! YWCA Again!	조은영	봄	02
서로 돌아보는 YWCA를 소망하며	김은경	여름	02
시민운동의 전환기, YWCA가 가야할 길	이은영	가을	02
연결의 은혜, 연대의 미래	함희경	겨울	02

말씀 묵상

제목	필자	호	쪽
총성스럽게	이진아	봄	03
온빛 - 세상을 비추는 빛	이윤미	여름	03
공감에서 시작되는 평화	김종생	가을	03
연대와 공감으로 이루는 평화	김장환	겨울	03

특집

제목	필자	호	쪽
2025년도 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			
- 2025 한국YWCA 정기총회 스케치			04
- 2025 회원YWCA 신임회장·신임사무총장			06
- 2025 YWCA 권역협의회 대표	편집실	봄	10
제4회 이행자리더십어워즈 수상자			11
- YWCA 지역운동강화 37개년 지원 계획			14
- 사진으로 보는 회원YWCA 정기총회 현장			
YWCA는 교육이다			
- 2025 YWCA 전국 회장단 연수	편집실		04
- 한국YWCA 성명서			06
- 회원YWCA 사무총장 연차별 역량강화 교육	김미애		07
- 2025 YWCA 신입이사 교육	정서연	여름	10
	김경희		
	공지숙		
- YWCA 신입실무활동가 교육	최유주		13
	박선미		
	윤정민		
	정니은		
한국YWCA정책협의회 공론장			
- YWCA정책협의회 스케치	편집실		04
- YWCA정책협의회	남궁혜경		06
- 2026~2027 한국YWCA 운동 운영정책(안)			10
- YWCA 공론장	안정희		12
- YWCA 공론장 참여 후기	강류안	가을	15
	김윤희		
	김예리		
	박행우		
	심진실		
	조혜숙		

기획

제목	필자	호	쪽
베이징 +30,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			
- '북경선언·행동강령 30주년'이 전하는 메시지	김은경		18
- 성평등을 위해 가속화하라	추은지	봄	19
- 국제적인 공론장에서 경험적 이슈를 제기하는 여성들	박지인		21
- 국제적 교류와 연대 통해 함께 하기	김윤희		22
우리시대의 평화			
- 히로시마 순례	이은혜		16
- 갈등을 다루는 안전한 공론장	박소영	여름	19
- 정쟁없는 한반도 6.6 한반도 평화대회	편집실		21
- 한반도평화대회 호소문	편집실		23
- 제12회 한일YWCA협의회	김수진		24
성평등한 기후정의운동			
- 성평등 기후정의운동	박다정	가을	17
- 탈핵·에너지정의운동	이영경		20
- 기후정의 생활실천운동	김병권		23
연대하는 용기			
- 후원 연대	편집실		04
- 정책 연대	이희숙		06
	강희경		
	황현숙		09
- 소통 연대	오은숙		10
- 지역 연대	조영숙	겨울	
	이미진		
- 섬김 연대	조은영		13
	김은경		
	이은영		
	서다미		
	박은실		

이슈포커스

제목	필자	호	쪽
안전한 공간 세이프 스페이스			
왜 지금, YWCA는 안전한 공간을 말하는가	김수진	가을	29
안전한 공간은 진행형입니다	조은정		31
지자체 사회적경제 정책평가 시상식			
지자체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이끌며	배정미	겨울	24
2025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			
고백 Go-100 스튜디오 : 문화예술을 통해 청년과 연결되기	손지수	겨울	26

현장

제목	필자	호	쪽
민주주의 회복하고 탈핵 사회로 나아가자	김수진		24
Y-틴 전국협의회	이은혜 임사랑 강경화	봄	34
대학·청년Y전국협의회	손지수		36
YWCA 카디리학교 활동나눔	이은혜		39
제1차 전국사무총장협의회	편집실		42
방사능안전급식조례 모니터링사업 결과보고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 지자체 이행 의지 핵심	남궁혜경		32
제1697차 수요시위	추은지	여름	36
쿠팡 노동자 추모·세종호텔 부당하고 노동자 연대	추은지		38
제2차 YWCA 전국사무총장협의회	김미애		41
Y-틴 드림십	황유림 조아라	가을	44
9·27 기후정의행진	손지수		48
2025 여성폭력추방주간 캠페인	남궁혜경		29
2025 세계 YWCA·YMCA 국제친선 및 기도주간 연합예배 사랑의 빛을 입고, 다시 함께 걷다	윤정민		32
2025 Y-틴 전국연대행동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 제개정운동 1년 인천YWCA Y-틴 운동 : 기억을 잇는 우리의 선택 충주YWCA Y-틴 운동 : 기억을 지키는 제도와 정책 을 만든다	이은혜 허은 이인선	겨울	34
2025 식품안전정보교육 기후변화와 식품안전, 그리고 시민실천	안정희		37

교육현장을 찾아

제목	필자	호	쪽
2025 YWCA 신입회장교육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연대의 강한 힘을 느꼈습니다	정서연 김미숙 김진환	봄	27
경남YWCA협의회 성평등운동 역량강화 워크숍 여성이 주도하는 성평등 솔루션	반혜영	여름	29
2025 YWCA 중견실무활동가교육 YWCA 안에서 하나인 우리	최유주 천미옥 안소진	가을	37

줌·인

제목	필자	호	쪽
2024 생명비전연구 프로젝트 시민 주도 연구로 YWCA운동의 내일을 찾다	유은비	봄	30

YWCA의료공론플랫폼 시민이 참여하여 함께 만드는 공론의 장	안정희	여름	34
제3차 YWCA의료공론플랫폼 지역의료, 공론장을 넘어 새로운 시도로!	고명정	가을	34
제23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인권과 평화, 포용과 공존의 세상, 꿈꾸며 걸어간다	정서연		18
YWCA 청소년 금융·경제교육 20주년 국제포럼 삶을 설계하는 힘을 만든 20년	홍수진	겨울	21

책소개

제목	필자	호	쪽
연대하는 용기	편집부	봄	47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묶인 비영리·공익법인		가을	56

크리스찬의 눈으로 보는 문화

제목	필자	호	쪽
인공지능은 인격체가 아니라 소비 제품	장여경	봄	48
인간과 기술의 책임을 나누는 철학적 기준	김윤명	여름	42
인공지능 기술이 이끌 미래의료	서준범	가을	51
영화 <세계의 주인>	김선영	겨울	40

청년 토크

제목	필자	호	쪽
다시 만난 세계: 왜 2030 여성들은 광장으로 나왔을까	대학·청년 YWCA	봄	50
젠더기반기술폭력(TFGBV)이라는 새로운 위협	대학·청년 YWCA	여름	40
우리에겐 잠시 머물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해요	대학·청년 YWCA	가을	54

모금이야기

제목	필자	호	쪽
영남지역 산불 피해복구 위한 지원금 전달 생명 존중의 연대가 공동체 살림으로	편집부	여름	44

보고기

제목	필자	호	쪽
오늘의 싱가포르YWCA를 만든 150년의 전략과 실천	유은비	가을	26



이·맘·때!

이제, 마음건강을 돌보아야 할 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함께합니다.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최대 64만원 지원

서비스 대상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 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5.1.1.~12.31.
- 신청방법 : 방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만 19세 이상, 복지로)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www.129.go.kr)

서비스 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바우처)
 -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제공
-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주소지 관계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 선택 가능
 -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http://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가격

- 서비스 단가(1회당) :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
- 정부지원금 소득수준별 차등화
 - 정부지원금 : 392,000원 ~ 640,000원(총 8회 기준)
 - 본인부담금 : 면제 ~ 192,000원(총 8회 기준)

